朝鮮國王使와 室町幕府

橋本雄

머리말
1. 朝鮮國王使에 대한 경고와 「把截」의 시스템
(1) 「警固」의 2 유형
(2) 조선으로부터 對馬・壹岐를 거쳐 博多, 赤間關로
(3) 瀨戶內海 항로를 거쳐 兵庫津에
2. 朝鮮國王使에 대한 京郊地域에서의 「支待」 시스템
(1) 「支待」-運送・警固・饗應-
(2) ≪康富記≫의 중요 기사를 읽는다
(3) 「國役」은 무엇에 이용 되었는가
(4) 京都에서의 숙박지
3. 朝鮮國王使에 대한 일본왕의 접견 의례
(1) 「日本國王」(室町殿)에 의한 사절 접견-人見儀禮 -
(2) 國書와 禮物의 수납
(3) 일본으로부터의 회례품・贈物 -贈答儀禮-
4. 가상의 조공 사절-결론을 대신해서-
【토론녹취문】

머리말

본고에서는 중세 일본을 방문한 朝鮮國王使가 어떠한 영접・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하겠다. 앞서 제출한 통신사의 연구사에 관한 정리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금후의 연구과제」의 ③・④-중세와 근세의 시간축에서의 비교 연구(3), 혹은 각 국가 간의 외교 사절 수용체제의 비교사적연구(③)를 위해, 우선 중세 일본에서 통신사가 어떻게 接遇되었는가를 명확히 한다고 하는 과제-를 의식한 것이다.[1] 室町

1) 이 보고에 대해서 한국측 위원인 조광씨로부터 “보고자(橋本)의 시점은 일국사관적으로 일본에 너무 치우쳐 있어 조선에서 본 시점을 넣어야만 한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보고자는, 먼저 일본측 위원·연구협력자와 공동으로 정리한 연구사의 정리와 과제를 받아 거기에 준거해 본 보고를 정리했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즉, 본 보고는 연구사 정리와 함께 병행하여 읽혀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다.

幕府가 어떻게 朝鮮國王使를 접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그 정치적·재정적·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사실, 朝鮮國王使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중세 일본(室町幕府-守護權力)이 어떠한 영접시스템에 기본을 두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리된 사료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 단편적 사료를 연결하여 귀납론적으로 조선사절의 영접시스템[2]을 복원해 나갈 수밖에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연구사정리의 과제③에 상당).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각기 부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지만(각각 해당 부분에서 언급), 총체적으로 「영접시스템」를 논한 것은 없다. 본 보고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1420년 回礼使 宋希璟의 ≪老松堂日本行錄≫을 축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일본측 사료의 기사를 참고하면서, 당시 일본에 의한 조선 사절의 「영접시스템」를 가능한 한 복원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康富記≫의 관련 기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싶다. 여기에 역간의 결론을 우선적으로 언급해 본다면, 이 「영접시스템」이라는 것은 警固·「把截」·「支待」·외교의례(引見贈答儀礼)의 4개의 요소로 성립되고 있었는데, 이 점은 본문에서 상술하겠다.

또한, 본 보고에서는 불충분하지만, 근세의 朝鮮國王使 영접시스템과 중세의 다른 일본 방문 사절(明使·琉球使 등)에 대한 영접시스템과의 비교도 염두에 두면서 고찰

또한 질의·토론 때에 충분히 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자의 이 연구가 결코 단순한 일국사관적 연구가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해 두고 싶다. 본 보고는 외국(조선왕조)의 사절이 중세 일본에 어떻게 대접되고 있었는가라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사」를 연구한 것이며, 확실히 필드는 일본에 중점이 놓여져 있지만(그러한 의미로 보고자도 자신의 보고를 「일국사관적」이라고 말해버렸지만, 오해를 부르기 쉬운 것 같아서 철회하고 싶다), 결코 「일국역사적」인 연구는 아니다(있을 수 없다). 원래, 「관계사」라는 것은 피아의 통교 시점에서 종점까지를 시야에 넣어 순차적으로 실증 연구를 중첩해가여만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연구 대상을 분할하고, 어떠한 방법론으로 진행하는지는 각각의 연구자에게 맡겨진 사항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2) 발표시의 보고원고(2003년 6월 14일, 對馬島에서)에서는 「영접체제」라고 하고 있었지만, 한국측 위원의 정구복씨로부터 무로마치 막부의 영접체제는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견실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 이와 같이 수정했다. 이것은 첫째로 한국어의 「체제」와 일본어의 「체제」라는 뉘앙스의 상이가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며, 「체제」보다도 완만한 구조를 가리키는 말로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을 이번 정정원고에서는 선택하게 되었다. 또다른 원인은 당시(중세) 일본의 국가 사회체제가 원래 분산적으로 통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왕조와 같이 확고한 통치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때문에 영접시스템도 「체제」(한국어적인 이유)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 이 점은 중세 일본의 국가 체질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양해를 바란다. 어쨌든, 정씨의 지적·교시에는 감사드린다.

을 진행시켜 보겠다(연구사정리의 과제④에 상당). 즉, 본고는 조선측의 외교 자세, 조선 왕조의 외교 체제를 논증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중세 후기 일본(室町幕府-守護權力)의 외교 자세를 문제시하고 있다. 이 점은 미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

덧붙여 이 점에 관해서는 통신사(중세) 연구사 정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室町期의 日朝關係는 朝鮮國王使가 京都(막부)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日本國王使가 서울까지 빈번하게 방문하는 「양면외교」였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이 근세 日朝關係(=「단면외교」)와의 큰 차이점이다. 그 때문에 室町幕府의 조선 외교 자세를 빼고 朝鮮國王使의 역사적 위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번에 전면적으로는 전개해 나가지는 못했지만, 室町幕府로부터 「파견되었던」 日本國王使의 모습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해 두고 싶다(우선, 中村榮孝 1966, 關周一 1997, 橋本雄 1997b 등을 참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朝鮮國王使」라는 것은 「일본통신사」 뿐만 아니라, 「通信官」 「回礼使」 「回礼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간 외교 사절(국왕사)을 전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한, 日朝關係에서 통신사의 위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도 근세 日朝關係史에서는 초기의 「회답」겸 쇄환사를 「조선통신사」행에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상식이면서도 중세 단계에서 「회례」사를 제외하고 「통신사」를 논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균형적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통신사나 回礼使등을 포괄해서 「朝鮮國王使」라고 불러 논의의 대상에 올리고 싶다. 통신사와 回礼使의 차이나 통신사 고유의 역사적 역할 등에 대해서는 그 후에 규명해도 좋을 것이다.

본고 말미에 中村榮孝의 연구(中村榮孝 1966)와 한문종의 박사논문(한문종 1996)등을 참고로 정리한 朝鮮國王使行의 일람을 제시하였는데, 참조하였으면 한다.

*참고로 본 보고 후의 토론을 거쳐 적당하게 설명을 보충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언급하였다. 또, 본론 부분에도 약간 수정을 하였지만, 논지에 전혀 변경은 없으며, 필요 최소한의 정정에 그치고 있다.

1. 朝鮮國王使에 대한 경고와 「把截」의 시스템

1) 「警固」의 2 유형

여기에서 일본어로 말하는 「警固」란, 영어를 사용하면 '가드 겸 파일럿'에 해당된다. ≪조선왕조실록≫등에서는 「護送」이라고 나오는 말이다. 이 「警固」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는 일본사 연구 분야에서 「上乘」(우와노리)으로 통칭 되고 있는 방식이다. 어느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해적 중의 한 사람이 배에 탑승해 그에 따라 항해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확실히 관습적으로 민간 레벨에서 성립되고 있었는데, 琵琶湖의 堅田에 있는 사례 등이 유명하다.(≪本福寺跡書≫)(勝俣鎭夫 1986・網野善彦 1992・櫻井英治 1996 등 참조). 당시의 사료를 보면, 배에 탑승하고 있는 해적은 「警固衆」과 「兵士」(효우지), 「上乘」(우와노리), 특히 九州에서는 「中乘」(나카노리)(橋本雄 2002a) 등으로 불리고 있었다. 「上乘」도 「中乘」도 警固衆의 인간(그 실태는 해적들과 마찬가지다)이 警固 하는 대상의 배에 탑승하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렇게 관습적으로 성립되고 있었던 민간의 시스템-「上乘」관습-이 외교 使船의 도항시에도 이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남북조 시대(14 세기)의 入元船이나, 室町 시대(15~16 세기)의 遣明船의 발견에 즈음하여 鎌倉・室町幕府가 警固를 명령해 「兵士」와 「中乘」이 승선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三浦周行 1981a・1981b, 佐伯弘次 1990, 橋本雄 2002a 등).

중세 일본에서의 「上乘」 관행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사료로서 유명한 것은 宋希璟이 돌아오면서 瀨戶內海를 항해할 때의 모습을 기록한 ≪老松堂日本行錄≫의 아래와 같은 기사이다(이하, ( )안의 번호는 교정본(村井章介 1987/2000)의 節 번호에 준한다). 참조해 보도록 하겠다.

(162) 泊可忘家利

是日申時, 到可忘家利, 此地群賊所居, 王令不及無統屬故, 護送舡亦無, 衆皆疑懼, 適日暮不得過歸, 望賊家泊舡焉, 其地有東西海賊, 東來舡載賊一人而來, 則西賊不害, 西來舡載西賊一人而來, 則東賊不害, 故宗金給錢七貫, 買東賊一人載來, 其賊倭到此, 乘小舟來曰, 「吾來, 願官人安心焉」, 卽向賊家, 俄而還曰, 「我已說彼人, 彼人曰來近家而宿焉, 願官人一時移泊可也」, 還歸宗金舡焉, 其島之人形容麤兇, 与馬島之倭同, …,

瀨戶內海의 蒲刈(카마가리)라고 하는 곳에서 동행하고 있던 博多 상인의 宗金(소우킨)이 동쪽의 해적을 7貫文(쌀값비로 보면, 현재의 40~45만엔 정도)으로 고용해 서쪽을 향했다. 이것으로 항해의 안전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쪽의 해적을 한 사람 고용하여 탑승시켜 가면 좋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上乘(警固) 요금의 시세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蒲刈의 주변에서 해적들의 領域 두 곳이 접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로 귀중한 사료인 것이다.

「警固」의 유형의 두 번째는 단지 「호송선」이 동반하여 항해하는 방식이다. 警固衆이 배에 탑승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이것도 回礼使 宋希璟의 귀국할 때의 기록이지만, ≪老松堂日本行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 (153) 過肥全州護送騰資職持酒上船
> 行舡之日, 護送倭騰資職請上舡求見, 予許之, 資職上舡, 予以酒飮之, 資職亦取酒於其舡, 勸吾)書示之,

備前國을 지날 때, 護送役(警固衆인가?)의 騰(藤原인가?)資職이라는 사람이 宋希璟의 배에 승선하고 싶다고 요구해 왔다. 宋希璟은 이것을 허락하고 술을 대접했다. 資職도 자신의 배로부터 술을 가져와 宋希璟에 권해 왔다라고 하는 기사이다.

우선, 資職이라는 사람이 원하여 宋希璟의 배에 오를 수 있던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호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中乘」 내지 「上乘」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宋希璟이 警固衆인 資職에게 술을 대접했다고 하는 점도 주목된다. 기이하게도 弓削島莊關係史料에는, 「中立酒肴料」(≪東寺百合文書≫よ函, 貞和五年十二月日付け弓削島庄串方算用狀, ≪愛媛縣史≫ 資料編 古代・中世-750号)라고 하는 문언이 보인다. 이것은 같은 사료에 병기되고 있는 「オキ嶋六郎兵士料」「野島(*能島村上氏=有力海賊) 酒肴料」에 주의하면, 警固衆에게의 酒肴料라고 하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은가. 어찌되었든, 警固衆(실태는 거의 해적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것은 警固에 대한 禮錢과 같은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반드시 警固衆이 승선하지 않는 동반 항해 형식의 호송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老松堂日本行錄≫에는 오히려 이러한 형식의 警固를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다.

2) 조선으로부터 對馬·壹岐를 거쳐 博多, 赤間關로
- 제1·제2의 「把截」(체크) -

그런데, 상기의 警固의 二類型에 주의하면서 ≪老松堂日本行錄≫을 읽어 나가면, 이미 往路의 단계, 對馬에서 壹岐로 향하는 도중에 「上乘」「中乘」의 예를 발견할 수 있다.

> (47) 三月初一日發對馬島, 宿一岐島北浜
> … 倪(*日本國王使·博多妙樂寺僧인 無涯亮倪), 送倭表三甫羅(*博多인 倭人)於予, 以備賊変, 予受之載舡而行, …

日本國王使 無涯亮倪가 宋希璟의 선박에 博多 왜인인 表三甫羅(兵衛三郎인가?)를 보내왔다. 「賊變」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분명히 해적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對馬島로부터 승선했다는 것으로부터 조선에서부터 對馬島까지는 對馬島인이 충분히 警固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對馬島로부터 壹岐, 그리고 博多까지는 博多 거주의 왜인이 上乘(警固)하지 않으면, 안전한 항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 表三甫羅 자신이 해적이었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다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얼굴이 통하는'(=영향력 있는) 존재였다는 것만은 확실할 것이다.

더욱이 表三甫羅는, 전술한(162)의 시점(귀로, 瀨戶內海 항행 중)에서도 아직 宋希璟의 배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재차 「동쪽의 해적」을 고용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바와 같이 瀨戶內海에서 그의 존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역시, 해적의 테리터리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이다.

3월 4일, 博多에 도착해 머물게 된 宋希璟 등은 그곳에서 막부(將軍 足利義持)의 상경 허가 명령을 기다리게 되었다(71)(54). 즉, 여기가 막부-수호체제와 접촉하는 제일 관문이었던 것이다(일본측 제1의 「把截」). 宋希璟 때는 九州探題였던 澁川義俊이 재촉함으로 인해 불과 16일 만에 상경 허가가 나왔다.(71) 이 상경 허가의 통지와 함께 朝鮮國王使의 警固를 각 방면으로 지시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며 國王使船에 대한 警固의 이어 받기가 이후 시작되었다.

3월 25일, 博多에 부임하고 있던 澁川氏 被官 伊東殿(博多代官)은 宋希璟 등을 赤間關까지 데려다 주고, 博多로 돌아갔다(74). 宋希璟은 그를 「關西 第一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접도 상당한 레벨의 격식을 갖춘 것이었을 것이다(「關西」=

九州). 구체적으로는 博多 市中에 문을 마련해 宋希璟 등을 도적이나 살인으로부터 지키고 있었던 것이 ≪老松堂日本行錄≫에는 기록되어 있다(56)(196).

赤間關에서 宋希璟 일행은 재차 막부의 상경 허가 명령을 기다리게 되었다. 3월 30일, 赤間關에서 「報告來, 聞王(*足利義持)多發護送船, 厚對入送之言」(상경 허가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왕(室町將軍) 足利義持가 다수의 警固船를 공출하여 후하게 접대하도록 명령을 내려 주었다) 이라고 하므로, 無涯亮倪나 宋希璟 등은 몹시 기뻐하였다(81). 즉, 赤間關이 제2의 관문이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일본측 제2의 「把截」, 호송형 警固의 개시).

확실히, 그 「호송」(警固)의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門司(모지) 주변에 있는 해적선들은 「호송선」의 모습을 보고 도망쳐 다니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81). 이 「호송선」의 집행 주체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赤間關에서부터 警固가 시작되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大內氏의 명령에 의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赤間關는 室町時代, 大內氏의 봉행인이었던 白松氏가 代官으로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關周一 1999, 20~21쪽). 또한 宋希璟의 사행이 있은 20년 후, 1443년에 통신사 卞孝文의 일행이 역시 瀨戶內海를 항행했었는데(京都의 막부까지 도달한 室町 시대 최후의 통신사), 여기에서도 역시 大內氏가 警固船을 조달해주고 있던 것이 알려지고 있다(≪조선세종실록≫ 25년 10월 갑오조).

참고로 宋希璟 다음에 일본을 방문한 1424년 일본국 回礼使 朴安臣은 입경 허가가 좀처럼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赤間關에서 55일간이나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국왕」(室町殿) 足利義持는 1423년, 回礼使 朴熙中 등의 귀국에 맞추어 국왕사 圭籌・梵齡 등을 조선에 보내 대장경판을 구청했지만, 조선측에 거절당했다. 그것을 원망하여 朴安臣 등의 일본 방문・입경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다. 게다가, 足利義持는 回礼使 朴安臣→大內氏 봉행인 白松氏→大內氏→室町幕府라고 하는 경로의 입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상경의 허가를 내리기는커녕, 朴安臣 등이 실고 온 경판(대장경판은 아님)・대장경・금자경을 다른 배에 옮겨 실고, 京都로 운송시키라고까지 명령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들은 朴安臣 등은 따를 수 없다는 취지를 大內氏에게 호소하고, 大內盛見이 막부에 재고를 요청해 무사 입경의 허가를 얻게 되었다(關周一 1999 21쪽). 이와 같이 大內氏는 일관하여 朝鮮國王使의 막부 통교에 편의를 도모하였고, 각종 사안을 주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일 외교상, 조선왕조부터 특별히 중요시되고 있었던 것이 종래의 연구에 지적되고 있다(中村榮孝 1966, 田中健夫 1975, 須田 2002 외).

여기에서 그것을 상징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439년, 李藝

(1406년 일본국 통신사 등을 경험)의 제안을 계기로 大內氏에게 통신사를 보낼지 어떨지에 대한 조정의 논의가 일어났을 때, 영의정 黃喜 등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 大內殿, 向我國至誠, 宜遣人通問, 然与對馬島有嫌, 往還之際, 疎礙可慮, 以國王通信爲名, 兼往大內殿通問何如,

다시 말하자면, "大內氏에게 통신하는 것이 주요하며, 막부에 통신하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고 하는 입장의 표명이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통신사 파견의 연기라고 하는 결과가 되었지만, 室町幕府 보다도 大內氏가 중요시되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어 대단히 흥미 깊은 부분이다.

3) 瀨戶內海 항로를 거쳐 兵庫津에
- 제3의「把截」-

瀨戶內海를 東行한 宋希璟 등의 일행은 아마도 4월 10일 전후에 室津(무로노쯔)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98) 거기서 그가 「旧主人余毛時羅」(衛門四郎인가?(村井 1987/2002, 93쪽))의 집에 숙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면, 「旧主人」이 일본의 商人宿과 問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예가 많다(村井章介 1993, 橋本雄 2002b). 아마, 宋希璟 등도 商人宿나 問에 머물렀을 것이다. ≪老松堂日本行錄≫(106)에 「利時老美夜店」(西宮의 「가게」)과 「盛加臥店」(瀨川의 「가게」)에 "過/宿"으로 되어 있는 것도 「店」을 漢語로 읽는다면, 商人宿 내지는 問이라고 보아도 문제는 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행시에 숙박하는 곳은 일본인이 여행할 때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곳이었다.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伊藤幸司氏가 상세하게 소개한 바와 같이 禪宗이나 時宗의 사원 등도 잊어서는 안 된다(伊藤幸司 2002). 유명한 것은 선종사원인 旦過寺나 旦過寮이며, 전국을 편력 행각하는 雲水僧(운수이소우)의 숙박시설이었다.(저녁에 와 이튿날 아침 지나친다는 의미) 宋希璟도 志賀島(173)(174)(178)와 博多(53)(66)(68)(179)(182)(188)(189)에서 「斷過寺」에 머물고 있었다. 선종 사원에 묵는 것은 京都 방면에서도 자주 있는 것이었다. 꽤 개방적인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旦過寺나 선원의 知客(시카)寮 등, 여행자를 묵게 하는 시설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한데, ≪조선왕조실록≫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

으므로 소개해 두도록 하겠다. 1429년 통신사 朴瑞生의 귀국 보고의 一條이다.

> 一, 旣差住持, 給陳米豆, 使供行旅, 客至則隨納錢多少饋之, 每月季, 輸錢于官, 受米豆以供之, 禁行旅載米炊飯者, 如此不已, 以廣用錢之術,
> ≪朝鮮世宗實錄≫ 11年 12月 乙亥條

관명으로 사원에 부임하고 있는 住持는 쌀과 大豆를 여행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었다. 정식의 雲水僧(修行僧)의 경우, 무상으로 숙박시키고 있었으며, 이윽고 掛塔(禪院 所屬)을 허락한다는 것(또는 허락하지 않는)이었는데, 실제로 여숙으로서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納錢」시킴으로서 유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여행자가 곡물을 지참하여 寺內에서 밥을 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사원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매월 말에 官(막부)으로부터 쌀과 콩을 구입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당시 막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官命으로 주지가 임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五山派 사찰이라고 생각되며, 위의 내용은 박서생이 묵었던 京都의 禪院에서 들은 내용일 것이다.

물론, 박서생은 일본 사회에서 錢이 다용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여, 조선에서 주조·발행할 것을 제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전술한 내용으로부터 숙박시설로서 사원 본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여기서 논증의 내용을 宋希璟의 여행으로 되돌려 보겠다. 宋希璟 등의 일행이 숙박지로 잡은 室津에서는 동행하고 있던 博多 상인의 宗金이 사자를 「王所」(幕府)에 보내, 아마도 입경의 허가를 신청하고 있었다고 본다. 꼼꼼한 입경 준비(주선?)였을 것이다. 막부로서도 「応永外寇」 직후의 朝鮮國王使의 일본 방문과 來京을 상당할 정도로 경계하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런데, 머지않아 4월 16일, 宋希璟 등은 畿內의 窓口인 兵庫津에 도착한다. 이것이 입경까지의 제3의 관문이다(일본측 제3 「把截」). 이 때의 모습을 ≪老松堂日本行錄≫으로부터 인용해 두겠다.

> (105) 十六日攝津州到泊兵庫,
> 去王所二日程, 翌日亮倪先歸王所, 代官報告於王, 而止之, 故留泊, 報人回來, 代官來謁設酒…

다음 날 4월 17일, 五山僧의 無涯亮倪가 먼저 상경해 막부에 가려고 했는데, 兵庫津의 「代官」이 「王」(室町殿=室町將軍)에게 보고하고 나서부터라고 하므로 이것을 만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報人」(使者)이 돌아 왔다. 아마, 상경의 허가가 내려졌을 것이다. 4월 20일, 宋希璟 일행은 兵庫津을 출발해 「王所」로 향했다.(106).

한편, 지금까지 일본측의 관문(체크 포인트)을 3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博多, 두 번째는 赤間關, 세 번째는 兵庫이다(關周一 1999). 이미, 關周一씨가 주목한 사료이기는 하지만, 이 점을 간결하게 서술한 중요한 기사가 ≪老松堂日本行錄≫에 실려있다.

(110) 二十三日深修庵書懷二首
… 日本之法, 他國使來朴加大(*博多), 則探提拘留而報告於王, 待其王入送之文, 然後入送, 到赤間關則代官, 又拘留見王入送之文, 然後入送, 到兵庫亦然, 如此三處有把截, …

이와 같이 室町幕府는 이국의 사절을 博多・赤間關・兵庫 등의 각 요소에서 점검하고 있었는데, 使船 警固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이 안 보이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다. 大內氏가 독자적으로 警固船을 준비한 1443년 통신사 변효문 일행의 예를 본다면, 조선 사절의 警固에 대해서 室町幕府는 매우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히 伊藤幸司氏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点에서의 관리에 지나지 않으며, 항구도시와 항구도시를 연결하는 線상에서의 관리는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伊藤幸司 2002).

끝으로 한 가지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항상 「일본국왕」(室町殿) 내지는 무로마치막부-수호권력의 「호송」(警固)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귀로의 단계에서는 믿음직하지 않다는 인상이 강하다. 예를 들면, 1432년 회례사의 李藝는 귀로의 瀨戶內海에서 해적에게 습격당하고 있고(≪조선세종실록≫ 6월 무자조), 1443년 통신사의 변효문에 이르러서는 역시 귀로, 伊予에서 警固衆 그 자체에게 해적 행위를 당하고 있었다(다만 금전을 지불하는 것으로 해결-≪조선세종실록≫ 25년 10월 갑오조). 후자의 예는 警固衆이 해적들과 실태적으로는 같았다고 하는 다른 무엇보다의 증거이지만, 결국 막부-수호권력에 의한 警固라는 것은 이 정도의 실효성 밖에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2. 朝鮮國王使에 대한 京郊地域에서의「支待」시스템

1)「支待」－運送・警固・饗應－

朝鮮國王使가 兵庫津으로부터 입경 할 때까지의 정황은 유감스럽지만 거의 관련 사료가 없다. 다만, 京都에 들어갈 때까지와 입경 전후의 대응은 몇몇 사료로부터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얼마 안 되는 사료를 근거로 조선 사절에 대한 중세 일본의「支待」(支援・接待)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이다(橋本雄 2002a).

ⓐ 1443년 6월,「先規대로」斯波氏가 사절의「供給食物」의 비용을 내고 있다(≪康富記≫ 嘉吉３年(1443) ６月 19日條-자세한 것은 후술하는【史料2】傍線 ②를 參照).

ⓑ 이「先規」에 해당되는 예로서는 ≪老松堂日本行錄≫에 산견하고 있는 甲斐氏(斯波氏家臣)와 그 家臣 狩野氏 등에 의한 조선 사절의 접대・警固 사례 등을 상정할 수 있다(≪老松堂日本行錄≫(119)(123)(124)(127)(128)). 특히 宋希璟 등의 警固・향응을 직접 담당한 狩野氏는 이별할 때, 宋希璟으로 하여금「내가 경애하는 騰監護, 一見해서 故人과 같다」(147) 라고까지 읊게 하고 있다.

ⓒ 약간 거슬러 올라가지만, 1375년에 통신사 羅興儒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에 守護 赤松義則으로부터 矢野莊에게 인부와 傳馬役(거룻배역)을 명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關周一 1995).[3]

상기의 세 가지 사례를 보는 것만으로도 幕府三管領家 筆頭인 斯波氏가 대대로 전통적인 조선국왕사의 접대와 숙소의 警固를 담당하였고, 다른 赤松氏 등의 守護大名이 운송・육로 警固를 나누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추측된다. (참고로 義敎 시대의 사례밖에 사료상 판명되지 않지만, 明使에게의 향응도 斯波氏가 주최·담당하고 있던 사실이 있다(≪滿濟准后日記≫永享6년(1434)6월5일조). 즉, 명·조선 사절이 來京했을 때에는 管領家 筆頭의 斯波氏가 접대하게 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4] 다만, 류큐 사절

3) 그 후, 상기의 須田牧子 논고에서 이 사례는 더욱 상세히 소개・분석되고있다(須田牧子 2004, 77-78).

4) 享德 3년(1454), 견명선의 兵庫 귀착시에「公方御使」인 막부봉행인 2명(飯尾美濃守貞元・同孫右衛門尉之種)에 앞서,「管領使」가 兵庫로 下向하고 있는데(≪康富記≫享德3年10月15日條), 이것은 아마 접대해야 할 중국인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또, 이러한 斯波氏의 역할과 관련해 위사의 발언이지만, 참고가 되는 사료

에 관해서는 사료상 불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추측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의 ≪康富記≫의 기사를 읽으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2) ≪康富記≫의 중요 기사를 읽는다

室町幕府-수호 권력에 의한 「支待」시스템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사료는 처음부터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에 제시한 ≪康富記≫의 기사이다. 이 사료는 꽤 이전부터 주목받아 온 것이지만, 의외로 철저하게 검토되어 오지 않은 듯하다. 여기에서 誤讀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보고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등한시되어 왔던 조선 사절에 대한 「支待」 시스템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史料 1】≪康富記≫嘉吉 3 年(1443) 5 月 6 日條

肥前入道[*幕府政所 奉行人의 永祥(飯尾爲種)]語云, “近日高麗人可來朝也, 先々要脚被懸仰諸大名, 被出之處, ①今時分諸大名諸國役出錢不可叶之間, 高麗人不可被入立京都, 可被追返也, 其間事, 管領畠山[*畠山持國]被存之間, 諸大名一揆して可被返高麗人也, 可爲如何樣哉, 意見密々談合清大外記[*清原業忠]” 之由語之, “唐船者, 誠不可入日本之由, 有先々御沙汰歟, 於高麗人者, 旣神功皇后御退治以後來服之三韓之隨一也, 高麗相通者, 可叶神慮也, 只不可入之由今更被仰者, 可爲後年煩歟, 如何して可被返之や, 所詮上古往昔ハ來朝之貢賦也, ②近來者爲商賣所入來也, 然者牒狀之文章違上古歟, 古今之牒狀取集見合天就文章之咎可被返高麗人歟”之由, 外史意見歟,

【해석】 肥前入道 永祥이 나(中原康富)에게 말을 전하기를 “근일 「고려인」(朝鮮國王使)이 「來朝」해 왔다고 한다. 이것에 앞서 (장군이) 제대명에게 명해 「要脚」(일종의 비용; 역자주)을 내게 하려고 했지만, ①요즘, 제대명이 여러 가지 「國役」과 「出錢」(守護段錢 등인가?)을 낼 수 없다고 하므로, 「고려인」을 입경 시켜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는 형세이다. 이러한 사정을 管領 畠山持國이 잘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기회로) 제대명(=守護大名)이 一揆하여(=마음과 행동을 함께 하여) 「고려인」을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奉行衆으로서 「의견」(장군에의 답신)을 정리하여

가 있으므로 소개해 두고 싶다. 左武衛(斯波) 義廉 명의 서계의 節이다(밑줄 참조). “凡行李往來之館, 義廉久司之, 特貴國皇華使來臨, 則犒以賓讌之礼, 其盛膳倍万于余邦也,…”(≪朝鮮成宗實錄≫2年(1471)12月己卯條)(이 斯波義廉 使送이 위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는 拙稿(橋本1997a) 참조). 또한 이 사료는 위사라고 해서 그 발언 내용이 완전한 거짓말의 위장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위사의 진위와 정보 진위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최근 별고(橋本2004)에서 一定의 고찰을 추가했던 적이 있다.

조정의 外記 淸原業忠과 은밀하게 상담했던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의견」이라는 것은 다음의 내용이었다.) "唐船」(明船)은 절대로 일본에는 들여놓을 수 없다는 御沙汰(室町殿의 명령)가 일찍이 있었다.(*4대 장군 足利義持 시대의 일명단교를 가리킨다). (그러나) 「고려인」은 이미 神功皇后의 「退治」 이래 일본에 복종해 온 삼한 중의 「隨一」이다. 때문에 「고려」와 외교하는 것은 오히려 신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朝鮮國王使에 대해서 단지 「입경시킬 수 없다」고 박정하게 말해 돌려보낸다면, 後年이 귀찮아질 것이다. 어떻게 되돌려 보내면 좋을까. 결국, 상고의 옛날, (「고려」는 일본에) 來朝하여 공납하고 있었는데, ②근래는 장사를 위해서 來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금의 牒狀을 취합하고 대조하여 문장의 허물(違禮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 그것을 이유로 「고려인」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양책일 것이다."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것은) 淸原業忠이 의견을 낸 것 같다.

【史料 2】≪康富記≫嘉吉 3 年(1443) 6 月19日條

「高麗人參入事」 (사무국주: 원문에는 없는 밑줄이 있었습니다.)

是日高麗人參于室町殿[*七代將軍足利義勝]. 懸御目者也. 当御代初度. 且奉弔普廣院殿[*六代將軍足利義敎]喪之由聘使也云々. 官人名可尋注之. 其儀. 各乘馬也. 布衣著笠云々. 其數及五十騎許歟云々. 路次作業. 或馬上操之. 笛一人鼓一人. 琵琶一人鉦鼓一人. 其外吹物二人有之云々. 進上物. 牒狀. 可尋注之. ①東山双林寺之傍景雲庵爲休所云々. 今日三條東洞院北行. 中御門西行. 室町北行參御所惣門云々. ②供給食物事如先規. 千代德殿〈斯和殿.勘解由小路殿[*幕府管領家斯波氏]〉被致下行云々. ③凡今度高麗人來朝事. 未付兵庫津之以前. 於管領有評定. 其謂. 室町殿御幼稚時分也. 諸大名國役已下要脚無沙汰之時節也. 旁爲無益歟之間. 不可被入日本〈都〉之由. 被仰遣之處. 高麗人申者. 非如先々商賣之料也. 爲普廣院殿御弔參洛之由申之間. 然者可被入歟之由. 諸大名等有評議. 遂以被入云々. 普廣院御代. 永享六七年[*1434・1435]比來朝之後. 今度初者也.

淸外記[*淸原業忠]說云. 高麗(ライ)ヲハ高句麗(カウクリ)トモ云也. 如此書タル書籍有之云々. 高麗(カワリ)ト云也云々. 唐人ハ勝定院[*四代將軍足利義持]不被入日本. 其後普廣院御代來朝也. 高麗三韓內也. 不可憚. 事起于神代者歟云々.

【해석】오늘, 「고려인」이 足利義勝의 집에 參上하고 장군의 알현을 받았다. 義勝代로서는 최초의 일이며, 先代의 6대 장군 義敎의 弔喪을 위한 사절이라고 한다. (… 중략 …) ①조선 사절의 숙소는 東山 双林寺 옆의 景雲庵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한다. ②공급(접대)의 음식은, 「先規와 같이」 斯波氏가 지불했다. ③원래 이번 「고려인」의 「來朝」에 대해서는 이미 兵庫津에 도착하기 전에 管領의 저택에서 「評定」(=評議)이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室町 장군이 아직 幼少하여 제대명도 「國役」 이하의 「要脚」(일종의 비용;역자주)을 沙汰할 수 없는(부담・出錢할 수 없는) 時分(시기;역자주)이기도 하다. 어느 쪽의 면면도 (조선 사절을 받아 수용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결정되어 (조선 사절에 대해서) 「일본의 수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지시를 내렸다」(室町殿의 이름으로 말을 전했다). 여기서 「

고려인」(朝鮮國王使 변효문 등)은 「前前과 같이 「商賣의 料」(=장사가 목적)인 것은 아니며, 선대 6대 장군인 義敎를 애도하기 위해 參洛(상경)했던 것이다」, 라고 호소했다. 그래서, 입경해도 좋다고 제대명이 評議를 결정해 결국 허가가 내려졌던 것이라고 한다. (후략)

3) 「國役」은 무엇에 이용 되었는가

여기에는 室町幕府-守護體制에서의 조선 사절 접대 시스템을 알기 위해 극히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로, 본래 조선 사절이 「來朝」했을 경우에는, 막부가 제대명에게 「要脚」(어떠한 목적을 위한 비용)을 요구하고, 그 「要脚」는 諸國에서 제대명이 모아 막부에 상납한 「諸國役・出錢」에서 조달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료1】【사료2】 참조) 이 「出錢」에는 전술한 해석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守護段錢(전답에 건 세금, 錢으로 징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편, 「國役」이라는 용어는 보통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國役(고쿠야쿠;こくやく)」(≪岩波日本史事典≫, 岩波書店, 1999年初版)
① 朝廷에 의한 國司에게로의 임시 課役.
② "구니야쿠(くにやく)"라고도함. 율령제 수취 체계의 기능이 불완전해짐에 따라, 10 세기 전반에 諸國에서 과세로 출현한 임시 잡역. 당초는 莊園에도 부과되고 있었지만, 11 세기 중반 이후, 國衙領만의 과역과 莊園도 대상으로 하는 一國 平均役으로 분화. 또 중앙으로부터 부과된 一國 平均役인 勅事・院事와 구별하여 국내 諸事의 과역을 칭하기도 하였다.
③ 室町時代, 막부가 國 단위로 부과한 段錢(중세 조세의 일종;역자주). 혹은 守護가 국내부의 莊園・武家領에 부과한 임시 과역. 後者는 守護禮錢, 人夫役 등도 포함해, 一國 平均役의 계보를 이끄는 막부 段錢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사료1】【사료2】(≪康富記≫)에서 말해지고 있는 「國役」이라는 것은 卽物的으로는 人夫役(노동력 내지는 勞賃)이었다고 추측된다. 이것은 틀림없이 前項에서 본 赤松氏의 荷物運送命令(사례ⓐ)과 같지 않는가. 오히려 반대로 이 【사료1】【사료2】로부터, 赤松氏의 사례가 조선 사절 '접대체제'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료2】의 밑줄 ③에 의하면, '장군이 幼少하므로 이 「諸國役・出錢」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조선 사절의 입경 비용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막부 주변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6대 장군 足利義敎가 암살되고 나서 머지않은 이 시기에 막부의 威令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嘉吉의 德政土一揆(민중의 봉기) 때문에 土倉(중세의 전당포;역자주)·酒屋(高利貸業者)가 습격을 당해 당시의 京郊 지역의 금융 시스템이 다운되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 사절을 京都에 맞아들이는 것은 실제로 비현실적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막부 장군가의 威令에 의해 기능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반드시 있어야할 조선 사절의 迎接體制像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로, 이것은 후술하는 室町幕府의 대외관(대조선관)과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 최근의 조선 사절은 「장사」를 위해서 오고 있으며, 그것이 室町幕府流의 '小中華意識'으로부터 본다면 별로 달갑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장사」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어떤가는 문제이지만, 여기서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막부 자신이 조선 사절측의 「의향」에 응해 정말로 「장사」를 행하고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이 점은 막부의 조선 사절 접대(支待) 시스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본고로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면에서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이하, 橋本雄2002a 참조).[5)]

【사료 2】(≪康富記≫嘉吉三年六月十九日條) 방선③ 후반 부분에 보이는 「商賣之料」의 「料」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별로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의 語義는 「任料」「布施料」 등의 '元手·資本·代金'이 아니고, 추상적인 '목적'의 의미일 것이다(≪日本國語大辭典(第二版)第十三卷≫(小學館2002)參照). 왜냐하면, 상기 【사료 2】 중에서 관계되는 해당부분을 예로 들면, "高麗人申者, 非如先々商賣之料也, 爲普廣院殿御弔參洛之由申　之間, 然者可被入歟之由, 諸大名等有評議, 遂以被入云々"(전에 FAX로 보내 드린 부분 입니다)(「入る」라고 하는 것은 입경하는 것-橋本註)이 되고 있어 방선부의 「○○之料」와 「爲○○」가 명확하게 對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爲○○」을 「○○를 위하여」라고 읽는 다면, 그것과 對가 되는 「○○之料」도 마찬가지로 "목적"의 의미를 취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 어의의 「料」는 당시(室町·戰國期)에 보통으로 보이는 용례였다(上揭, ≪日本國語大辭典≫에 의하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낸다. ○○를 위해서 "라고 있으며, ≪竹取物語≫(9世紀末~10世紀初)와 ≪平家物語≫·≪古今著聞集≫(13世紀前半), ≪御伽草子≫(16

5) 이하, 발표시의 원고에 있던 선행 연구의 재검토와 비판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가 錯綜하기 때문에 삭제했다. 논지와 본질적으로는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보고자의 구고(2002a) 등을 참조바란다. 그렇기는 하지만, 본문(정정원고)은 보고 시에 구두로 보충한 내용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두겠다.

세기) 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법·어법 구조에 주의하면서 【사료 2】 방선③ 후반 부분을 해석하면, 대략, 이하와 같이 된다. 즉, "조선의 통신사 변효문 일행이 '지금까지의 통신사가 장사 목적으로 일본 방문한 것과는 달리 이번은 普廣院殿(足利義教)의 弔祀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통신했던 것이다.'라고 호소해 막부 유력자는 그들 통신사의 입경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즉, 통신사의 입경을 거절하고 있던 당초의 태도를 막부가 바꾼 이유는 통신사가 선대 室町殿=義教의 조문이라고 하는 명목을 강조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橋本2000, 9쪽・高橋公明1985). 조선 사절측에서 보면, 「商賣之料」(장사목적)로 일본에 방문했다고 책망 받은 것은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조선 사절을 실고 온 使船의 경영자나 승무원, 客商 등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라도 -왜냐하면 宋希璟은 부산에서 兵庫까지 배를 갈아 탄 형적이 없다- 조선 왕조와 통신사 변효문 등이 「장사」를 제일의 목적으로 일본에 왔다고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다.

또한, 한편으로 諸大名의 「國役・出錢」도 「商賣의 料(목적-橋本注)」에 응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조선 사절을 대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兵庫에서 京都까지의 화물의 운송비와 京郊 제지역에서의 접대비・향응비 등-였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추측은 근세의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사행 루트의 여러 鄕村에 부과된 운송・향응의 부담비용이 「國役」이라 불리고 있었다는 저명한 사실만을 상기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4) 京都에서의 숙박지

그런데, 조선 사절은 京都에 들어가 어디에 묵고 있었던 것일까? 사실은 京都라고 해도, 시내에 묵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문헌 사료로 판명되는 한, 朝鮮國王使의 京都 숙박지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伊藤 2002 참조).

사료상 알려진 것은 불과 4가지의 사례뿐이지만, 天龍寺(嵯峨)와 深修庵(仁和寺地區), 松月庵(不明), 景雲庵(東山地區)라는 도성 밖의 사원에 숙박하고 있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특히, 深修庵에 대해서는 「조선 回礼使의 입경 시에는 비구니를 다른 곳으로 옮겨 관사로 삼는 것이 통례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村井章介 1987/ 2000, 102쪽[108]注1). 예측이기는 하지만, 조선 사절의 숙박지로서 여승방이 선택된 이유에는 중세 단계에서 비구니절이 가진 특성이 영향을 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年次	使命	正使	宿泊先	典 據
1367	——	金龍	天龍寺	≪後愚昧記≫貞治 6 年 3 月24日條 ≪愚管記≫同年 3 月20日條 ≪太平記≫(卷39)高麗人來朝事
1420	回礼使	宋希璟	魏天(中國人通事)宅	≪老松堂日本行錄≫(107)
			深修庵(仁和寺心蓮院의 東隣, 尼寺)	≪老松堂日本行錄≫(108)(109)(110)(115)(120) 등 ≪朝鮮世宗實錄≫ 2 年10月癸卯條
			松月庵	≪朝鮮世宗實錄≫ 2 年10月癸卯條
1424	回礼使	朴安臣	深修庵	≪朝鮮世宗實錄≫ 6 年12月戊午條
1443	通信使	卞孝文	景雲庵(東山 双林寺之傍)	≪康富記≫嘉吉 3 年6月19日條 (상기 【사료 2】 방선①)

당시의 일본 사회에서는 「여성=三從五障」설[6]에 근거한 여성죄업관에 근거해 미망인 등의 여성들이 여승방에 몸을 의지하게 되어 있었다(여승방은 「結界」였다). 한편, 조선 사절도 명사절도 유명한 쿄토 祇園會의 구경을 막부측으로부터 거부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祇園會가 원래 어영신앙에 근거하는 제례이며(脇田晴子1999參看), 역병의 유행을 제거한다고 하는 祇園會의 본래적 성격에 저촉되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關周一의 흥미로운 견해도 있다(關周一1995, 73-74쪽). 즉, 여성 죄업관·멸시관과 외국인 차별·부정관이 연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7]

---

6) 월경·출산 때의 출혈이나 「母性」그 자체 등에 유래하여 여성은 父・夫・자식들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三從」의 가르침, 또 梵天・帝釋天・魔王・轉輪聖王・仏身이 될 수 없다고 하는 「五障」의 사상에 의해 성불할 수 없는, 그것은 선천적인 죄업을 떠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그 최대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法華經≫「藥王品」「提婆達多品」이다). 다만, 그것을 구제하는 조치·생각도 동시에 준비되어 있었다. 역시 ≪法華經≫「提婆達多品」에는 용녀가 공덕에 의해 일단 남자로 변화해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變成男子成佛」설이 전개되어 그것이 여성 일반에게도 적용되었다고 한다(鈴木正崇2002・西山厚2003 등 참조). 중세 일본(특히 헤이안시대 후기)의 裝飾経-장식된 法華経-에 여성의 發願되는 것이 많은 것은 이러한 복잡한 사정이 생각되어진다.
무엇보다도 이러한(아마는 남성 중심의) '여성과 불교'관으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 여성측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여성들 사이에는 이러한 여성 죄업관이 보급·침투되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중세 전기(카마쿠라기)에는 오히려 그 침투도는 낮았으며, 중세 후기(무로마치·전국기)에 접어들어 서서히 침투·확대해 갔다는 것이 실정인 것 같다(野村育世2004). 이와 같이 중세 일본에는 여러 가지 '여성과 불교'관이 혼재하고 있었다는 것, 여승방이나 비구니도 주체적·적극적인 사회적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여성 죄업관도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것이라고 하는 당연한 것을 재차 확인하여 강조해 두고 싶다. 덧붙여 본주도 포함해, 여성과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두 발표시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밝혀둔다.

7) 중세 일본 열도, 특히 중심부의 기나이 주변에서 외국인에 대해 불명예관(케가레관)이 강

다만, 중세 일본에서의 여성 차별과 외국인에게로의 차별 의식이 함께 단순하게 부정적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은 조금 경솔한 생각일 것이다. 당시 저명한 쿄토의 여승방은 선종이나 율종에 속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 카마쿠라 후기 이후, 선・율이 체제불교화를 이루는 것에 의해 官寺로서 자리매김해지는 것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선종여승방)(牛山佳幸1989・2003).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深修庵은 喝食에 관한 기사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찰이었다고 생각된다(牛山佳幸1990). 임제선계 여승방에서는 '尼五山' 등의 순위매김도 정돈되어 있으며(湯之上隆1990・大石雅章199 등 參照), 전술한 심수암이 '尼五山' 체계에 짜여진 임제종의 官寺系 여승방이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그 때 쿄토의 여승방에는 천황가・황족의 집안・막부를 비롯해 유력 문신・무가 출신의 여자나 미망인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았던 점도 놓쳐서는 안되며(勝山令子2003), 그 밖에 사료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서 深修庵을 한 마디로 천한 선찰이었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조선사절을 숙박시켰다(숙박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을 비추어본다면, 상당히 랭크가 있었던 寺庵이었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중세 일본에서의 여승방의 망라적인 검출을 계속하고 있는 牛山佳幸의 연구 성과 등에 배우면서 고찰을 계속해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술한 표 중에 있는 경운암의 태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双林寺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天台宗, 南北朝期에는 時宗(13세기에 一遍智眞이 開宗한 淨土宗의 일파; 역자주)의 國阿가 중흥하여 東山道場이라고 불려진 時宗 寺院으로 되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平凡社地名百科事典 京都市の地名≫, 伊藤 2002 275쪽). 時宗이 禪宗의 寺院(塔頭)이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8] 時宗의 道場의 개방성, 또 유통 경로상의 입지가 좋다는 점 등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만약을 위해 부언 해 두면, 天龍寺에 숙박한 1367년 高麗使 金龍・金逸 등도 天龍寺의 本山이 아니라, 塔頭인가 어디엔가 묵었음에 틀림없다.

참고로 1471년, 左武衛(斯波) 義廉이 「貴國(＊朝鮮)之伻者, 來朝于本邦, 專所憩息」

해지게 된 것은 9 세기 이후의 일이다(村井1995·バートン2000 참조).

8) 參考이지만, 來日한 明使가 어디에 묵고 있는가인데, ①応永9年(1402)는 洛北法住寺(≪吉田家日次記≫ 同年 8月 11日條, ≪武家年代記≫ 同年 8月 9日條), ②永享6年(1434)는 洛中의 大宮猪熊道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알현 이전에는 정식의 숙소로서 머물수는 없기 때문에 (仮의) 下・中 클래스의 숙소로 바꾸기를 바란다."라는 明使側의 의향에 따라 급거 변경 장소로 된 六條法華堂(本國寺?)(≪滿濟准后日記≫ 同年 6月 1日條 등)의 두 개의 사례가 알려져 있다(伊藤幸司2002 參照)(다만, 後者의 ②에 대해서는 明使가 「三條猪熊法華堂」에 「居」했다는 증언도 있다-≪薩戒記≫ 永享 6年 6月 1日條).

이라고 하여 京都東山의 「東光寺」라는 절의 이름을 들고 있지만(≪조선성종실록≫ 2년 12월 기묘조), 원래 이 사절이 위사이며 斯波氏 본인과는 무관계였기 때문에(橋本 1997a), 지금으로서는 믿기 어렵다.

3. 朝鮮國王使에 대한 일본왕의 접견 의례

1) 「日本國王」(室町殿)에 의한 사절 접견－접견 의례－

【조선국왕사에 대한 賓禮】

朝鮮國王使의 외교 의례에 대해서는 외교 문서의 양식면을 중심으로 高橋公明氏(高橋 1982 a·1982b)에 의한 상세한 연구가 이미 있으며, 또 1443년 통신사 변효문 入京 때의 座次論爭에 대해서는 통신사(중세) 연구사로 개요를 소개해 두었으므로, 朝鮮國王使가 어디서 어떻게 「일본국왕」(室町殿)에게 알현했는지, 回禮品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접견·증답 의례로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사절 접견 의례의 장면을 보자. 그 장소(소재지)가 사료로 알 수 있는 초기의 예로서는, 1367년 高麗使였던 金龍·金逸 등이 雲居庵(天龍寺塔)에서 2대 장군 義詮의 延見을 받은 예(≪善隣國宝記≫ 卷上 ―後光嚴院 貞治 6 年 丁未條), 1420년 回礼使 宋希璟 등이 宝幢寺에서 인견을 받은 예(≪朝鮮世宗實錄≫ 2 年 10月 癸卯條), 1422년 回礼使 朴熙中 등이 等持寺·宝幢寺에서 접견한 예(≪看聞日記≫ 応永30年 6月 7日條, ≪朝鮮世宗實錄≫ 6 年 12月 戊午條), 1429년 6월 19일, 6대 장군 足利義教가 仁和寺 等持院에서 통신사 박서생을 인견한 예(≪滿濟准后日記≫ 同日條)가 눈에 띄지만, 그 다음의 사행부터는 室町第(室町幕府·足利將軍의 저택 주변;역자주)에서 引見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었던 것 같다.(伊藤 2002 275쪽)

우선, 永享 5년(1433) 정월 26일, 回礼使 李藝 등을 장군 足利義教가 室町第에서 인견하고(≪看聞日記≫ 同日條 등), 그 다음에 永享 11년(1439) 12월 26일, 통신사 高得宗 등을 장군 足利義教가 室町第에서 인견하고 있다(≪蔭凉軒日錄≫ 同日條). 후자에 대해서는 국서 증정의 모습이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해당 사료를 인용해 두겠다(당일, 사절을 인도한 사람은 蔭凉職 季瓊眞蘂였다(≪蔭凉軒日錄≫ 前日條 參照)).

①高麗通信使, 參殿中, 乃於南面欄中, 三拝而奉書, ②所貢方物件々納之正實坊御倉, 書幷別錄則在当寮(*蔭凉軒),

≪蔭凉軒日錄≫ 永享11年 12月 26日條

하선부분①에 의하면, 「南面」하는 장군 足利義教에 대해서 삼배하고 국서를 봉정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南面」은 말할 것도 없이 사절에 대해서 상위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義教는 「欄中」에서 아마 선 채였다고 생각된다. 통신사 高得宗 등은 사행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이와 같은 굴욕적인 외교의례를 감수하고 있었던 것이다.[9] 유 감스럽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조선

9) 한국측 연구 협력자의 장순순씨에게 통신사 고득종 등이 「굴욕적인 외교 의례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蔭凉軒日錄≫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된다는 지적일까?. 그러나, ≪蔭凉軒日錄≫은 蔭凉職의 내부기록이므로 고의로 허위를 써내려 가는 사료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보고자는 역시 고득종 등이 [굴욕적인 외교 의례]의 집행을 감수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굴욕적」이라고 형용해야할 것인가 아닌가는 별개로 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조 관계가 절대적·항상적으로 일본 상위에서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에는 결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국왕사나 여러 왜인통교자가 반대로 조선에 건너갔을 때 「굴욕적인」 외교의례를 행하고 있던 사실로부터 오히려 일본 쪽이 조선보다 하위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장씨의 주장도 당연히 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외교 의례라고 하는 정치적인 장면에서 수용하는 국가 쪽이 상위에 서는 것(내항한 외교 사절을 조공사절이라고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출하는 것은 언제 어느 나라에서도 행하고 있는 평범한 사실이며, 현대의 우리에게 그러한 각국의 자국 중심 주의를 상대화해서 보는 것이야말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일을 염두에 두면, 원활히 통교관계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통신사 고득종 일행과 많은 왜인통교자들이 「조공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었다고 조차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여하튼, 우리의 조상에 해당되는 인간들이 비굴한, 굴욕적인 외교 의례를 감수했다고 해서 현대의 우리가 비굴한(혹은 거만한) 생각을 할 필요(필연성)는 추호도 없는 것이다.
덧붙여 이상의 논의에 관해서는 이하 필자의 별고도 참조 바란다(橋本雄2003, 20-21쪽).
「화이사상의 諸相」을 정리한 酒寄雅志氏(酒寄1993)에 의하면, 화이사상은 왕화사상과 표리를 이루며, 배제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포섭의 논리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한다. 「천자」 아래에 周縁의 諸蕃에서 「조공」해 오는 일도 왕화사상의 일환이다. 즉, 고려왕조의 팔관회적 질서(奥村周司1982)도 조선왕조의 「조선외교질서」(高橋公明1987)도 무로마치 막부의 대외관-조선이나 류큐를 조공국으로 보는 관념-(村井章介1988, 橋本雄1997b・2000)도 역사적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말하자면 흔히 있던 현상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역사 공간에는 다양한 「천하」와 「중화」가 겹쳐 얽혀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한 복수의 주관이나 가상, 그리고 망상이나 언설을 폭로하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田中健夫씨가 날카롭게 지적한 바와 같이, 대외관이라는 것은 국제관계 속에서 길러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대외관이 국제관계 그 자체를 규정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田中健夫1997). 어딘가의 나라나 지역의 중화사상(화이의식)만이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수하게 느껴진다. 또 시

왕조실록≫의 기사는 남아있지 않다.

여하튼, 義敎 시대의 도중부터 조선국왕사의 접견이 정치의 정식 무대(「殿中」)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은 확실하다. 게다가 그것이 마치 조공 사절에 대하는 것과 같은 형태였던 것은 중요하다. 15세기 상반기에 室町殿 권력의 장엄화에 외교 관계가 원용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琉球使에 대한 賓礼(外交儀礼)】

來京한 琉球使에 대한 賓礼(外交儀礼)에 대해서는 足利義政 시대의 사례가 사료에 있기 때문에 소개해 두겠다(宮本義己1995參看).

A ≪齋藤親基日記≫文正元年(1466) 7月28日條
琉球人參洛,〈当御代六ヶ度目,〉号長史, 於御寢殿庭前三人懸御目一, 三拝申了, 庭ニ鋪席,
一, 女中衆御見物,
一, 御供東之御緣伺候,
一, 走衆六人, 上土門南候了,
一, 進物料足一千貫文, 其外如先々,
一, 懸御目三人進物種々,自小侍所, 元連[＊飯尾元連(大和守)], 之種[＊飯尾之種（肥前守)], 爲奉行執次之進上也,

B ≪蔭凉軒日錄≫文正元年(1466) 7月28日條
‥‥琉球國官人參, 而庭上消 {ママ} 三拝退出, 忽獻方物也, 退出之時,於惣門之外辺故放鐵放 {ママ} 一兩聲, 人皆聽而驚顚也,自彼國王於愚老件々贈物幷有狀, 凡於我方以狀通レ好,尤人情之常,是信是義爲希, 況千里万里遼遠之地如此, 實公方顔遇之恩榮, 其所及不亦幸乎,

이것에 의하면, 琉球國王(中山王) 尙德의 使者 芥隱承琥(카이인 쇼우코)가 足利義政邸(室町殿)에서 알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A・B방선부분). 더욱이 뜰 앞에 자리(筵?)를 깔고 그 위에서 「三拝」했다라고 한다. 예물도 「進物」이라고 불리워져(A), 정말로 「來朝」 사절로서 취급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明使에 대한 賓礼(外交儀礼)】

명사의 일본 방문과 그에 대한 빈례에 대해서는 책봉 수락의 의식이 사료에 잘 남

대나 시기에 따라서도 각국·각지역의 비중이나 강약이 다른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국제관계란 실로 상대적이며, 또한 유동적인 것이다(石井正敏2001, 第四部 第一章).

아 있다. 다만, 그것도 義滿(1402년)·義敎(1434년)의 2회뿐이다. 한편, 義持期에는 일명관계를 단교하였고, 義政期 이후는 명사의 일본 방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방문 명사에 대한 빈례 일반을 논할 만큼 사례가 풍부한 것은 아니다. 책봉의 수락의례에 관해서는 ≪滿濟准后日記≫가 자세하며, 선학의 상세한 지적이 있으므로(田中健夫1975외),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우선 義滿 시대(応永9년=1402년)의 책봉의례이다. ≪滿濟准后日記≫応永6년(1434) 5월 12일조에 의하면, 公卿十人・殿上人十人이 각각 染裝束을 착용하고 近衛良嗣과 菊亭公行이 北山殿의 惣門까지 參向. 악사가 한 곡을 연주하고 義滿이 새우색의 법복, 흰 바탕 금란의 평가사를 걸치고 四脚門까지 마중나갔으며, 명사는 「唐書」(황제의 조칙과 예부의 자문)을 머리 위로 올려 義滿의 앞을 걸어 나간다. 北山殿 寢殿의 차양의 사이에 만광석을 깔고, 母屋・出衣 이하 장엄을 다해, 그 母屋의 앞에 높은 책상을 두어 「唐書」를 안치. 義滿은 거기를 향해 우선 분향하고 다음에 세번 절하며, 더욱이 무릎을 꿇어 「唐書」를 열어 보았다. 이것도 또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義滿의 이 정중함에 滿濟도 여러사람도 「甘心」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게다가 記主의 滿濟는 당시를 회고하여 「故鹿苑院殿[＊足利義滿]御沙汰事過タル樣, 其時分內々道將入道[＊斯波義將]等申候し, 愚眼所及, 又同然候キ」라고 토로하고 있다.

다음에 義敎시대(永享6년=1434). '너무 정중한 義滿시대'에 대한 반성에서 상당히 간략화 한 것 같다. ≪滿濟准后日記≫ 永享6년 6월 3일·5일조에 의하면, 아래층까지 義敎가 내려가는 일은 없었으며, 伶人(奏樂人)이 惣門까지 參向하고 공경 두 명이 4각문까지 나간다. 母屋의 室禮는 동북측에 曲彖一脚을 두어 주인의 자리로 삼고, 서쪽에 曲彖二脚, 처마 밑에 쪽에는 曲彖三脚庇을 세워 명사들의 자리로 삼았다. 국서를 보기 위한 의식에 대해서는 우선 명사가 아래층에 있을 단계에서 대마루를 나와 국서에 배례. 명사는 국서를 바쳐 義敎의 앞에 높은 책상을 둔다. 명의 국서는 「自異朝候天書」이며, 「일본대신이하」는 燒香二拜가 동서 고금 통례의 예의이기도 하다는 것으로 燒香二拜를 행한다. 국서를 보는 것도 서서 행했다. 그 다음에 曲彖에 착석하여 茶禮를 행했다고 한다.

또한 册書(국왕임명서)를 가져온 명사 이외에도 室町殿 義滿은 대체로 마찬가지의 빈례를 가지고 北山殿에서 명사를 접견했다고 한다(田中健夫1975, 68쪽). 그러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전해지지 않는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명사 귀국시의 의례 순서 등에 대해서는 책봉사의 경우도 포함하여 아무런 사료가 남아 있지 않다.

2) 國書와 禮物의 수납

여기서는 직접 외교 의례와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국서와 예물의 수납 방법 및 장소에 대해 간단하게 고찰한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蔭凉軒日錄≫ 永享11년 12월 26일조의 밑줄② 부분은 지금까지 「續史料大成」本(臨川書店刊)의 訓点-「所貢方物件々納之, 正實坊御倉書幷別錄則在當寮」에 따라, 「正實坊御倉의 書와 別錄 등이 蔭凉軒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今枝愛眞 1970 422쪽, 寺嶋雅子 1977 264쪽, 田中博美 1987 66쪽).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古事類苑≫ 外交部와 같이 「所貢方物件々納之正實坊御倉, 書幷別錄則在当寮」라고 읽어야만 한다(전술 인용문 밑줄 ②에서는 여기에 맞추어 구독점을 찍고 있다). 이것은 명・조선으로부터의 國書類가 蔭凉軒에 보관된다고 하는 원칙(橋本雄 1997b)에 비추어도 전혀 틀림이 없다. 이러한 해석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한, 이 條文에 의하면, 조선 국왕으로부터의 贈物은 형식상, 한 번은 모두 막부에 수납되었다라고 생각된다. 아마, 조선 사절이 일본에 방문하지 않고, 답례품만 일본 사절의 귀국에 맡길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傍證이 될 수 있는 사료가 많지는 않지만, 4개 정도의 사료가 있으므로 다음에서 例示해 주겠다.

① 1431년, 조선으로부터의 「進物」 동전 1,000貫・唐物 등이 公方義教에게 헌상되었다. 귀국한 日本國王使船(遣朝鮮使船, 正使는 宗金?)이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된다(≪看聞日記≫ 永享3年 7月 28日條).

② 1460년, 美濃一宮의 請経(大藏経求請)船(正使秀彌)이 귀국하여 대장경을 가져왔고, 중개역을 맡은 美濃守護 土岐持益이 公方義政에게 「御禮」로서 5천필(50貫文)을 바쳤다(≪蔭凉軒日錄≫ 長祿4年 3月 10日條).

③ 1487년, 귀국한 越後 安國寺 請経船(正使等堅(梵堅))의 例에서는 아마 御禮로서의 천필(10貫文)과 조선으로부터의 「反物」 모든 것이 막부에 「進上」되었다(≪蔭凉軒日錄≫ 長享元年 12月 24日條). 후자는 국서의 별폭에 기재되어 있던 부분일 것이다.

④ 1490년에 귀국한 伏見般舟三昧院 請経船(正使惠仁(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선승이 도항))의 경우에는, 조정 내에서 조선으로부터의 「進物」=「貢納」=返禮品을 「武家」(將軍家)에 보내는가 보내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결국 「武家」에 보내기로 결정했다(≪實隆公記≫ 延德2年 7月 10日條). 조선으로부터의 返禮品을 將軍家에 납입한다고 하는 선례를 모방한 것은 아닌가.

이상의 例로부터, 조선으로부터의 贈物・返禮品은 우선(이념상・형식상) 막부에 납

입되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마, 당초에는 御倉方 내지는 寺奉行이, 나중에는 「唐船奉行」 飯尾大和守方이 귀국한 사절로부터 물품・국서류를 징수하여 각각 리스트와 물건을 대조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수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유감스럽게도 그 장면을 전해주는 사료는 없다. 다만, 대량의 대장경의 경우, 실제로 政所에서 검사하여 수납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10]

또한 琉球使節의 「進物」에 대해서는 幕府政所奉行人-唐船奉行인 飯尾元連 등-이 검수하고있었다는 것이 足利義政 시대의 사료로부터 판명되고 있다(≪齋藤親基日記≫ 文正元年(1466) 7月 28日條). 그리고, 일본과 류큐간에 주고 받은 문서가 기본적으로 한문사료가 아니라, 일본식의 문서였다는 것(佐伯弘次1994), ≪善隣國宝記≫ 등에 류큐관계문서를 실지 않았던 것은 京都五山僧이 아니라, 幕府政所가 문서관계를 소관하고 있었다고 추측되는 것(橋本雄1997c) 등으로부터 일본 류큐관계는 기본적으로 幕府政所가 관할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류큐로부터의 외교사절이 선승이었다고 해서 (더군다나 사료상에서 판명된 예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五山禪僧이 류큐외교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3) 일본으로부터의 회례품・贈物－증답의례－

室町幕府로부터 朝鮮國王使에 보내진 회례품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室町幕府 자신이 지출한 것 같다.

예를 들어, ≪蔭凉軒日錄≫ 永享12년 6월 15일조에는 「高麗被遣之註文懸御目, 正實坊可下行之由被仰出, 但籾井方白之」라고 있다. 여기서 御倉奉行(財政事務官)인 籾井某가 正實坊(財務請負人)에게 回禮品代를 출자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장군

10)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사례 ②의 50貫匁, 사례 ③의 10貫匁+反物 전부로는 대장경의 「가격」(禮錢)으로서 너무나도 싼 것이 아닐까. 원래 종교적인 아이템인 대장경에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부적절)하지만, 「가격」이 되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헤아려야 할 것인가. 거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사례 ②의 1458년의 遣朝鮮船, 美濃一宮 請経船(正使秀彌)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美濃守護 土岐持益의 동향이다. 즉, 대장경의 御禮를 가져오기 수일전에 土岐賴益의 菩提寺, 興善院이 중간에서 도움을 주어 妙法院에 室町殿의 「御成」(행차)를 맞이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때, 다름아닌 土岐賴益 자신이 군세를 인솔해 警固했다는 것이다(≪蔭凉軒日錄≫長祿4年3月20日條-細川武稔씨의 敎示). 대장경 將來의 「사례」는 앞의 「5천필」(경제적 금액)에 그치지 않았던 것이 추측되며, 정치적·군사적인 「御禮」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장경에 대한 「御禮」는 금전적 액면뿐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로부터 찾아 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義敎가 籾井方에 출자를 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蔭凉軒日錄≫ 永享12年 2月 9日條). 당시의 籾井은 재정이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御倉衆의 正實坊에 전가한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로 누가 어떠한 자금을 근거로 지불했는가는 명확하지 않지만(시기에 따라서 달랐을 것이다), 여하튼 日朝國王間의 증답 의례는 막부·公方御倉 자신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국왕으로부터의 회례품·贈物에 대해서 반드시 막부가 수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은 이것과 유사한 체제가 遣明船貿易(日明朝貢貿易)에서도 성립되고 있었다. 즉, 일본국왕으로부터 황제에게로의 조공품(贈物)은 막부(실제로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御倉衆)가 지불하고 황제로부터 일본국왕에게로의 回賜品(贈物)은 막부의 政所를 거쳐 公方御倉에 수납되었던 것이다(橋本雄 1998b).

4. 가상의 조공 사절 – 결론을 대신해서 –

마지막으로 室町幕府側이 어떻게 조선 사절을 보고 있었는지, 對朝鮮觀·對朝鮮使節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 본 보고를 매듭짓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도 반복하여 지적되어 온 것이지만, 중세의 일본, 특히 위정자 레벨은 조선 멸시관이라고도 말해야 할 대외관이 매우 농후하게 뒤덮여 있었다(村井章介 1988, 제1부). 그 내용이라는 것은 중국대등·조선하위라고 하는 국제적인 서열의식이었다. 본 보고 중에서 예로 든 사료의 곳곳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 사절은 우선 무엇보다도 「來朝」해 와야 할 존재이며, 「進物」을 바쳐야 할 존재였다고 여겨져 왔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室町殿의 위신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조선·琉球 사절이 畿內로 「來朝」할필요가 생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물론, 외교 문서 양식상, 대등 관계를 표방하는 日朝關係(=조선사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室町 정권측에서의 주관-가상의 「朝貢」[11]-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선·琉球 사절이 일본 京都로 「來朝」한 것

11) 이 「假想」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한국측 위원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왜 부적절한가의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당시(무로마치 시대)의 위정자(무로마치 막부 주변)가 조선 멸시관을 가지고 있던(=독선적인 국제적 질서를 「假想」하고 있던) 것을 보고자(橋本)가 지적함으로서 다시 이 현대 일본에서 「잘못된 역사관」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 危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 보고자는 그러한 멸시관을 조장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 서있다.

은 전통적 외교관을 그 어떠한 결점도 없이 충족시켜, 당시의 「주권자」 室町殿의 위광을 장엄하게 빛내주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①=조선관계, ②=류큐관계)를 참조하고 싶다.

① 「高麗來朝, 新羅來朝」의 문자를 싣고 있는 「한 편의 책」이나 來日使節에 대한 무례의 원인으로 여겨진 「舊史」가 당시 외교 매뉴얼로서 현실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朝鮮成宗實錄≫ 10年 2月 丙申條, ≪朝鮮世宗實錄≫ 11年 12月 乙亥條)(村井 1988 第Ⅰ章·補論 1). 이것은 아마 ≪臥雲日件錄拔尤≫ 寬正 5年 5月 20日條의 淸原業忠의 발언으로 보이는 「諸國來貢을 기록한 書」, 즉 ≪蕃客錄≫이라고 하는 서물일 것이다(≪國書總目錄≫에는 보이지 않는다). 寬政 5년(1464)의 단계에서 이러한 고색창연한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른바 고대적인 「제국의식」 「소중화의식」이 중세 후기에도 살아 있던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의식으로서는 조선왕조야말로 막부에 「조공」 사절을 보내와야 할 국가이며, 이쪽으로부터는 (가능한 한) 사절을 파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본래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足利義持가 조선왕조에 대해서 집요하게 대장경 「판」을 요구했던 것도(村井章介 1997, 關周一 1997) 대장경의 생산 수단만 입수할 수 있다면 이미 遣朝鮮使船을 보내지 않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해본다.
여하튼, 室町幕府의 주변은 조선 사절이 '가상의 조공사절'이었다는 것-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일 것이다.

② 応仁·文明의 난 수습 후, 足利義政이 島津氏에 대해서 琉球에의 「來朝」를 독촉하도록 요청한 다음의 사례는 틀림없이 8대 장군 足利義政에게 소중화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自琉球國無音申之儀, 世情窓劇之間者, 不及是非候, 旣靜謐之上者, 早々如先例御船可有來朝之旨, 可被申遣之由, 被成奉書候, 被仰出候通, 急速御伝達候者, 可然存候, 同此使者可罷上候時, 可遣御船之段肝要候, 恐々謹言,
二月一一日(文明12年・1480) 下野守英基(花押)(*布施英基)
謹上 島津陸奧守殿(*島津忠昌)

「假想(의「조공」/「조공사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의해 '무로마치 막부는 통신사(조선국왕사)를 「조공사절」과 같이 연출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은 「조공사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즉, 무로마치 막부의 국제 인식의 倒錯像이야말로 여기에서는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며, 조선왕조의 「외교 질서」(자국중심주의, 혹은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아종이라고도 말해야할 것인가) 모두를 상대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세계관·대외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각주 10번도 참조). 이 점, 일・한의 학계·역사교육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닐까.

(≪島津家文書≫ ①281号)

就琉球國之時儀, 去二月十一日之御奉書, 同四月廿九日到來, 謹以拝見仕候訖,
抑彼船如先例, 可致來朝之由, 被成御奉書候, 同御使渡海候上者, 敢不可有緩怠之儀候哉,
於于私上意之趣速申送候, 無如在之儀候, 以此旨, 可有御披露候, 恐惶謹言,
月 日 藤原武久(*島津忠昌)
謹上飯尾前大和守殿(*飯尾元連)
布施下野守殿(*布施英基)
(≪島津家文書≫ ①338号(文明12年・1480))

그리고, 이러한 막부의 대외적 관념을 시간적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허락된다면 4대 장군 足利義持 정권 이후, 빈번하게 畿內에 「來朝」해 온 琉球 사절의 존재(佐伯 1994)는 足利義持 정권의 '소중화의식'을 충분히 채우고 있었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적어도 琉球使船이 가져오는 「唐物」은 將軍家의 위신을 드높이는 재산이 되었을 것이다.

이상 ①・②의 사례로부터 琉球使와 琉球船도 '가상의 조공사절'로 간주되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류큐는 조선과 달리 통교 무역의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일본측에 일부러 겸손하게 보이고 있던 것 같다.(佐伯弘次 1994 참조).

그리고 한편,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국왕」(室町殿)은 형식상 明皇帝의 신하이다. 따라서 명사절의 來日을 「來朝」 내지는 「入貢」과 같이 연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室町殿의 受封 儀禮에 임해서는 義敎 때에 보이듯이 「神慮」나 「저주」(역자주: 중국측의 배려나 응징)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의미에서 義政時代(15세기 중반 応仁 때 遣明船의 明使의 來日 단절에 대한 보고-≪戊子入明記≫) 이후, 明使가 來日하지 않게 되어,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재정난의 고뇌가 끊이지 않았던 室町 정권에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橋本雄 1997a. 1998a. 2000 참조).

이상과 같이 室町幕府는 현실의 국제관계와 '가상의 국제관계'와의 갭 사이에서 항상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국내의 내란을 계기로 명과 조선사절의 일본 방문이 끊어지면서(橋本雄 1997a・2000, 伊川 2000) 그 고민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대로 '가상의 대외관・조선관'이 증폭되어 豊臣政權의 조선침략으로 연결되어 간 것이다(村井章介 1993・1999).

【인용문헌일람】(저자명은 五十音順, 論文 副題는 생략)

網野善彦, 1992, ≪海と列島の中世≫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伊川健二, 2000, <中世後期における外國使節と遣外國使節> ≪日本歷史≫ 626号
石井正敏, 2001,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伊藤幸司, 2002, <中世後期外交使節の旅と寺> 中尾堯編 ≪中世の寺院体制と社會≫ 吉川弘文館
今枝愛眞, 1970, ≪中世禪宗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牛山佳幸, 1989, <中世の尼寺と尼> 大隅和雄・西口順子編 ≪シリーズ女性と仏教1尼と尼寺≫ 平凡社
_____, 1990, <續・中世の尼寺ノート(その1)> ≪信州大學教育學部紀要≫ 70号
_____, 2003, <中世の尼寺とその周辺>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 48卷 5号
大石雅章, 1990, <比丘尼御所と室町幕府> ≪日本史研究≫ 335号
奥村周司, 1982, <高麗の外交姿勢と國家意識> ≪歷史學研究≫ 別冊大會報告号
勝浦令子, 2003, ≪古代・中世の女性と仏教≫ (日本史リブレット)山川出版社
勝俣鎭夫, 1986, <山賊と海賊> ≪週刊朝日百科日本の歷史8德政令≫ 朝日新聞社
佐伯弘次, 1990, <室町時代の遣明船警固について> 九州大學國史學研究室編 ≪古代中世史論集≫ 吉川弘文館
_____, 1994, <室町前期の日琉關係と外交文書> ≪九州史學≫ 111号
酒寄雅志, 1993, <華夷意識の諸相>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編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Ⅴ自意識と相互理解≫ 東京大學出版會
櫻井英治, 1996, ≪日本中世の經濟構造≫ 岩波書店
鈴木正崇, 2002, ≪女人禁制≫ 吉川弘文館
須田牧子, 2002, <室町期における大內氏の對朝關係と先祖觀の形成> ≪歷史學研究≫ 761号
_____, 2004, <中世後期における赤間關の機能と大內氏> ≪ヒストリア≫ 189号
關周一, 1995, <中世後期における「唐人」をめぐる意識> 田中健夫編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_____, 1997, <室町幕府の朝鮮外交> 阿部猛編 ≪日本社會における王權と封建≫ 東京堂出版
_____, 1999, <朝鮮王朝官人の日本觀察> ≪歷史評論≫ 592号
高橋公明, 1982a, <外交儀礼よりみた室町時代の日朝關係> ≪史學雜誌≫ 91編8号

_____, 1982b, <外交文書、「書」·「咨」について> ≪年報中世史研究≫ 7号
_____, 1985, <室町幕府の外交姿勢> ≪歷史學研究≫ 546号
_____, 1987,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歷史學研究≫ 573号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_____, 1997,≪東アジア通交圈と國際認識≫ 吉川弘文館
田中博美, 1987, <武家外交の成立と五山禪僧の役割> 田中健夫編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寺嶋雅子, 1977, <蔭凉軒御倉について> ≪(中央大學)大學院研究年報≫ 7 号
中村榮孝, 1966, ≪日本と朝鮮≫ (日本歷史新書)至文堂
西山厚, 2003, <總說：女性と仏教> 特別展図錄 ≪女性と仏教－いのりとほほえみ－≫ 奈良國立博物館
野村育世, 2004, ≪仏教と女の精神史≫ 吉川弘文館
バートン、ブルース, 2000, ≪日本の「境界」－前近代の國家·民族·文化－≫ 青木書店
橋本雄, 1997a,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王城大臣使の僞使問題> ≪史學雜誌≫ 106編 2 号
_____, 1997b, <≪遣朝鮮國書≫と幕府・五山> ≪日本歷史≫ 589号
_____, 1997c, <書評：田中健夫著≪前近代の國際交流と外交文書≫≪東アジア通交圈と國際認識≫> ≪古文書研究≫ 46号
_____, 1998a, <室町・戰國期の將軍權力と外交權> ≪歷史學研究≫ 708
_____, 1998b, <遣明船と遣朝鮮船の経營構造> ≪遙かなる中世≫ 17号
_____, 2000, <室町幕府外交は王權論といかに關わるのか？> ≪人民の歷史學≫ 145号
_____, 2002a, <永正度の遣明船と大友氏> ≪九州史學≫ 130号
_____, 2002b, <肥後菊池氏の對外交流と禪宗・港町> ≪禪文化研究所紀要≫ 26号
_____, 2003, <中世日本對外關係史の論点> ≪歷史評論≫ 642号
_____, 2004, <眞贋のはざまに> 村井章介編 ≪8-17世紀の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人・物・情報の交流－海域と港市の形成、民族・地域間の相互認識を中心に－≫(上卷) (日本學術振興會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1)) 研究成果報告書、平成12年度-平成15年度)
韓文鍾, 1996, ≪朝鮮前期對日外交政策研究≫(博士論文、全北大學校大學院史學科)
三浦周行, 1981a, ≪日本史の研究≫(第 1 輯下)岩波書店
_____, 1981b, ≪日本史の研究≫(第 2 輯下)岩波書店
宮本義己, 1995, <室町幕府と琉球使節> ≪南島史學≫ 45号
村井章介, 1987, (校注) ≪老松堂日本行錄－朝鮮使節の見た中世日本－≫(宋希璟著)(岩波文庫)岩波書店(第 3 刷：2002年)

_____, 1988,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_____, 1993, ≪中世倭人伝≫(岩波新書) 岩波書店
_____, 1995, <王土王民思想と九世紀の轉換> ≪思想≫ 847号
_____, 1997, ≪國境を超えて－東アジア海域世界の中世－≫ 校倉書房
_____, 1999, <壬辰倭亂の歷史的前提> ≪歷史評論≫ 592号
湯之上隆, 1990, <足利氏の女性たちと尼寺> 九州大學國史學研究室編 ≪古代中世史論集≫ 吉川弘文館
脇田晴子, 1999, ≪中世京都と祇園祭－疫神と都市の生活－≫(中公新書) 中央公論新社

往還年月日 (朝鮮史料)	使節名目	使者 姓・諱(官職)	號	字	派遣對象 (日本)	備　　考
高麗恭愍王15年(1366)11/14派遣	?	金逸(檢校中郎將)			日本(國王)	倭寇禁壓要請
		金龜				
高麗辛禑王元年(1375・永和１)2/-派遣	通信使	羅興儒(判典客寺事)			日本(國王)	倭寇禁壓要請。歸國時, 日本으로부터　報聘使 良柔 (晋州出身, 日本歸化僧)동반함
朝鮮太祖元年(1392・明德３)	倭寇禁壓要請	覺鎚(僧)			征夷大將軍(足利義滿)	典據：≪善隣國寶記≫
太祖３年(1394・應永元)5/28來日	回禮使	金巨源 梵明(僧)			九州節度使(今川了俊)	
太祖３年(1394)10/11派遣,　４年(1395・應永２)7/20來日	回禮使	崔龍蘇(前工曹典書)			鎭西節度使(今川了俊)	
太祖４年(1395)12/14歸還	回禮使	金積善(戶曹典書)			九州節度使(今川了俊)	
太祖６年(1397・應永４)2/9?日	?	朴仁貴(通事;前司宰少監)			對馬島	
太祖６年(1397)5/6派遣	?	朴仁貴(前司宰少監)			對馬島	
太祖６年(1397)12/25派遣, 定宗元年(1399)5/歸還	回答使/通信官	朴惇之(前秘書監)			大內殿義弘(大內義弘)/日本國王(足利義滿)	途中에　回禮使로부터 通信官으로 명칭變更. * 朴惇之, 初名은 啓陽
定宗元年(1399・應永６)8/26派遣	報聘使	崔云嗣(戶曹典書)			日本大將軍(足利義滿)	海難事故를 당함.
定宗２年(1400・應永７)	回禮使	尹　銘			對馬島・壹岐島	
太宗元年(1401・應永８)	?	朴惇之(敦之)(檢校參贊)			日本	
太宗元年(1401)		李　藝	鶴坡		對馬島・壹岐島	
太宗２年(1402・應永９)7/11致書	(回禮使?)	(趙漢(參議)?)			日本大將軍	≪朝鮮王朝實錄≫에는 <致書日本國大將軍>으로 되어있는데, 回禮使：趙漢(典據:≪老松堂日本行錄≫114頁)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太宗 4 年(1404・應永 1 1)4/25派遣	報聘使	呂義孫(典書)			日本國王(足利源道義)	
太宗 6 年(1406・應永13)2/20派遣	報聘使	尹 銘(檢校工曹參議)			日本國王(足利源道義)	
太宗 6 年(1406)3/29派遣	?				對馬島守護	宗貞茂父喪弔慰
太宗 6 年(1406)閏7/3歸還	回禮官	李 藝			日本	朝鮮人被虜人의 送還
太宗 7 年(1407・應永 1 4)10/19派遣	?	李臺貴(判禮賓寺事)			對馬島守護	
太宗 8 年(1408・應永15)3/14歸還	通信官	朴 和			日本	* 朴和는 高麗忠烈王 때 元將忽敦과 함께 對馬・壹岐를 侵略.
太宗 8 年(1408)5/10歸還	回禮官	金 恕			日本國	朝鮮人被虜人의 送還
太宗 8 年(1408)5/12歸還	客人護送官	李春發			壹岐志佐殿	朝鮮人被虜人의 送還
太宗 8 年(1408)5/22歸還	回禮官	崔在田			大內殿	朝鮮人被虜人의 送還
太宗 8 年(1408)8/1派遣	報聘使	金 浹(前書雲觀丞)			大內殿	懶翁 [高麗時代원 禪師]의 畵像을 賜給
太宗 8 年(1408)11/16歸還	?	平道全(護軍)			對馬島	
太宗 9 年(1409・應永16) 2 月派遣,太宗10年(1410)4/14歸還	回禮官	朴 和(司直)			壹岐志佐殿(源秋高)	
太宗 9 年(1409)4/21派遣	報聘使	平道全(護軍)			對馬島	
太宗10年(1410・應永17)2/4派遣,太宗11年(1411)1/26歸還	回禮使	梁需(前海州牧使)	漢城		日本國王(足利源道義)	芭蕉夜雨圖(東博)에 著贊
太宗10年(1410)5/13派遣	?	李藝(前護軍)	鶴坡		對馬島主	
太宗11年(1411・應永18)9/11派遣	?	平道全(護軍)			對馬島主	
太宗13年(1413・應永20)6/16派遣,11/24復命	通信官・回禮官	朴礎(前万戶)			壹岐志佐殿・對馬島主	
太宗13年(1413)12/1派遣	通信官・通信使	朴賁(檢校工曹?議)			日本國王(足利義持)	* 朴賁는 太宗 17年(1417) 沒。

太宗14年(1414・應永21)8/7派遣	?	池溫(降倭)			對馬島主	
太宗16年(1416・應永23)7/3	?	平道全?			對馬島主	
太宗18年(1418・應永25)4/24派遣,世宗元年(1419)8/24啓	敬差官	李藝(行司直)	鶴坡		對馬島主	
世宗2年(1420・應永27)閏1/15派遣, 10/25復命	回禮使	宋希璟(仁寧府少尹)	老松	正夫	日本國王源義持	日本國王使無涯亮倪・文溪正祐(南禪寺僧)이 請經。
		尹仁甫(通事)				
世宗4年(1422・應永29)12/20出發,世宗5年(1423)12/4復命	回禮使	朴希中(典農事尹)	葦南	子仁	日本國王源義持	日本國王使圭籌가 請經.
		李 藝(護軍)	鶴坡			
		吳敬之(奉禮郎)				
		尹仁甫(通事)				
世宗6年(1424・應永31)2/7辭,12/4復命	回禮使	朴安臣(判繕工監事)		伯忠	日本國王源義持	日本國王使圭籌・梵齡의 大藏經板求請(→拒否)。
		李藝(大護軍)	鶴坡			
		孔達				
		崔古音				
		朴忱				
世宗8年(1426・應永33)2/12?,5/21復命	賜物管押使	李藝(大護軍)	鶴坡		對馬島・石見州	宗貞盛祖母弔慰, 路引(文引)制發足。
世宗10年(1428・應永35)12/7發行,世宗11年(1429)12/3歸還	通信使	朴瑞生(大司成)	栗亭鶴坡		日本國王源義教	義持致祭, 義教嗣位。
		李藝(大護軍) 金克柔(前副	孟鋼			
		校理)				
世宗14年(1432・永享4)7/26派遣,世宗15年(1433)10/6啓	回禮使	李藝(上護軍)	鶴坡		日本國王源義教	日本國王使梵齡의 請經。
		金久冏(護軍)				
		房九成				
		金元				
世宗20年(1438・永享10)4/11派遣,9/18啓	敬差官	李藝(僉知中樞院事)	鶴坡		對馬島	
世宗21年(1439・永享11)4/27派遣	敬差官	?			對馬島	

世宗21年(1439)7/11辭, 世宗22年(1440)5/25歸還	通信使	高得宗(僉知中樞院事)		子傳	日本國王源義教	
		尹仁甫(上護軍)		敬甫		
		金禮蒙(副司直)				
世宗25年(1443·嘉吉3)2/21辭, 10/19引見復命	通信使	卞孝文(僉知中樞院事；專對)		一敏	日本國王	典據:金宗直≪佔華齋集≫。
		尹仁甫(上護軍)		泛翁		
		申叔舟	希賢；保閑齋適庵			*曹伸은 이것을 포함하여 渡日經驗 3回, 北京 7回經驗。
		曹伸		叔奮		
世宗25年(1443)6/14派遣	?	尹仁紹			對馬島	
世宗25年(1443)7/18辭, 11/15復命	體察使	李藝(僉知中樞院事)	鶴坡		對馬島	
		牟恂(護軍)				
世宗25年(1443)8/2辭, 世宗26年(1444)4/30歸還	招撫官	康勸善			壹岐島	
		皮尙宜(通事)				*皮尙宜는 投下倭人.
世宗29年(1447·文安4)3/16派遣, 5/6復命	敬差官	曹彙(前兵曹佐郎)			對馬島	
世宗30年(1448·文安5)2/20派遣, 7/5歸還	?	皮尙宜(司譯院判官)			壹岐島	
端宗元年(1453·享德2)8/4派遣, 10/17復命	致奠官·致賻官	李堅義(守成均司芸) 皮尙宜(護軍)			對馬島	
端宗2年(1454·享德3)12/7派遣, 端宗3年(1455)4/12復命	通信使	元孝然(僉知中樞院事)			對馬島	三著圖書特送船의 件에 따름
		皮尙宜(通事)				
世祖5年(1459·長祿3)8/23派遣	通信使	宋處儉(僉知中樞院事)			日本國王源義政	海難事故에 의해 使行行方不明
		李從實(行護軍)				
		李覲(宗簿注簿)				
世祖7年(1461·寬正2)4/22派遣	宣慰使	皮尙宜(上護軍)			對馬島	宗成職母弔慰

世祖 7 年(1461)7/11派遣	敬差官	金致元(行上護軍)			對馬島	弔慰？
		金瓘(都官佐郎)				
世祖14年(1468・應仁 2)7/30復命	敬差官	金好仁(行護軍)			對馬島	
成宗元年(1470・文明 2)9/1辭	宣慰官	田養民(司譯院僉正)			對馬島	
成宗 6 年(1475・文明 7)7/16辭	通信使	裴孟厚(議政府舍人)		載之	日本國王源義政	
		李命崇(弘文館修撰)				
		蔡壽(吏曹正郎)	懶齋(ランサ)	耆之		
成宗 7 年(1476・文明 8)2/12辭, 7/19復命	宣慰使	金自貞(承文院判校)			對馬島	
		徐有山				
		許得江(通事)				
成宗10年(1479・文明11)4/4辭, 10/15復命	通信使	李亨元(直提學)	可行		日本國王源義政	李亨元, 對馬앞에서病死, 使行中止
		李季仝(昌城都護府使)				
		金 訢(校理)				
成宗18年(1487・長享元)3/26辭	宣慰使	鄭誠謹(直提學)		而信	對馬島	
成宗25年(1494・明應 3)3/2 6 辭, 7/27復命	敬差官	權柱(弘文館副應敎)	花山	支卿	對馬島	
燕山君 2 年(1496・明應 5)閏3/20辭, 6/13復命	致奠官・致慰官	金[illegible]			對馬島	宗貞國致祭・致慰
		張珽(漢城判官)				
中宗 5 年(1510・永正 7)2/3	敬差官(致慰官)	康仲珍(濟用監正)		子韜	對馬島	宗材盛致慰・致奠
		李軾				
中宗17年(1522・大永 2)5/6派遣決定	垂問使				對馬島	島主襲位(다만 致慰使의 名目은 許용되지않음)
宣祖23年(1590・天正18)3/6發, 宣祖24年(1591)1/13歸還	通信使	黃允吉	友松	吉哉	日本國平秀吉＝豊臣秀吉	
		金誠一(禮賓寺正)	鶴峯	士純		
		許 筬	岳麓	功彦		

不明(應永外寇[1419]前後)	?	李養中				典據：卞季良 ≪春亭集≫ ＊卞季良은 1430年沒。
不明(應永外寇[1419]前後)	?	朴丕(檢校參議)				典據：卞季良 ≪春亭集≫

토론녹취문

ㅇ주　제 : 朝鮮 國王使와 室町幕府
ㅇ발표자 : 橋本雄 연구협력자
ㅇ일　시 : 2003. 6. 14(14:30-17:20)
ㅇ장　소 : 대마도 이즈하라문화회관
ㅇ참석자
- 한국측 : 손승철, 조광, 정구복, 한문종, 박재광
- 일본측 : 吉田光男, 田代和生, 六反田豊, 伊藤幸司, 米谷均, 橋本雄, 北島方次

토론문

손승철 : 오전에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전체적인 토론을 못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전부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할 테니까? 선생이 체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吉田 : 저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토론은 중요한 기록이 되니까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 이것은 정확한, 그, 의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손승철 :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간단하게...

조광 : 간단히 질문하라는 압력을 받았는데, 저는 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논문은 室町幕府와 通信使의 관계를 소상히 밝히고자 노력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시각이나 연구 방법론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지적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근본적으로 연구의 시각에 대한 문제와 연구의 방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연구의 시각과 방법이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 좋은 논문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硏究의 視覺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사의 연구에서는 사실과 함께 사실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실이 추구했던 컨텍tm트 위에서 사실을 수렴한 텍스트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도 동아시아가 내재한 한일 관계라는 컨텍스트 위에서 무로마치 막부의 조선인식이라는 텍스트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東아시아 談論 내지는 東아시아적 視覺에서의 접근이 요청된다고 생각됩니다. 橋本 선생의 논문은 자국사의 입장에 충실하고자 했고 바로 일국사의 입장에서 무로마치 막부의 조선 인식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당시의 동아시아, 특히 조선에서의 일본관에 대한 이해와 연결이 될 때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연구의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고, 硏究의 方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硏究史 整理에 관해서 입니다. 새로운 주제를 연구할 때는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사의 정리와 함께 정리된 그 결과를 논문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무로마치 막부의 조선관 내지 조선 인식에 대한 연구사 분야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논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두 개의 큰 경향 중 하나만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高橋公明 류의 연구 성과에 대한 언급이나 소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은 高橋公明선생의 조선외교질서론 내지는 조선대국관과 자신의 연구 결과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및 그 새로운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 논문을 읽는 제 3의 독자들은 무로마치 막부 단계에서 이른바 조선멸시관만 팽배한 것으로 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 방법에서 두 번째 지적으로 意味 附與의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관해 의미를 부여를 할 때에는 상당한 근거가 요청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의미 부여과정에서 근거 자료의 제시가 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본측 논문 13쪽, 도표 밑의 다섯 번째 줄입니다. 한국측 논문은 11쪽입니다. 거기에... 여승방을 사절의 숙박처로 선택한 이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승방을 조선 사절의 숙박처로 선택한 이유가 조선 멸시관과 관련이 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구체적인 사례가 동일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연구자의 단순한 추정인지요. 일본측 논문 17쪽 10행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측은 14쪽입니다. 17쪽 10행. 여기에서는 소중화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소중화의식의 전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중화의식의 전제를 제시한 데에는 근거가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례를 소중화 의식이란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일본은 자국을 천하로 생각을 했고, 바로 그 당시 조선은 일본을 島國, 섬나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이나 조선의 견해는 모두 극복되어야 할 전근대적 세계관들입니다. 그런데 橋本 선생의 논문은 日本天下觀에 입각해서 小中華라는 용어의 사용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일본을 島國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일본 자신의 영역을 천하로 규정을 하고 있었다면 일본측의 이러한 규정은 많은 한계가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선생의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그렇게 크게는 의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적 시각의 적용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일본 천하관은 극복되어야 할 전근대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橋本 선생의 논문에서는 소중화 의식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일본천하관을 미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이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천하관에 대한 연구자 본인의 평

가가 함께 내려져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소중화의식이란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자 문명권에서 공유하는 소중화라는 단어의 개념과 橋本 선생의 소중화라는 개념이 약간은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들기 때문입니다. 橋本 선생의 논문을 잘 읽으면서도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여러 가지 의문이 함께 있지만, 저에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 의문 정도만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논문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면 더 좋은, 객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吉田 : 그러면 橋本씨에게서 간단한 답변을...

橋本 : 글쎄요, 감사합니다. 저, 뭔가 말하고 싶습니다만... 저, 원래 이 연구보고라는 것은 연구사 정리 중에서 골라내서, 그, 연구사 정리의 최후의 과제에서 골라내서 그것을 개별로 논술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동아시아론을 논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더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교사절을 문제로 하는 한, 때문에 一國史的으로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논문이 과제로 삼는 것은 외교사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금후로,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사절이라든가 류큐에 있어서의 어디라든가 명나라에 있어서의 조선사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축적되어서 차차 동아시아론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混在시켜서는 안 된다. 역사의 관점은 어기까지나... 또 방법론에 대해서. 마지막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소중화의식이라는 말, 아마 일본과 한국의 학회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문맥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보통 일본에서 소중화의식이라고 하면 石母田正이라는 연구자에 의해서, 그의 고대국가론 중에 나옵니다.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을, 동아시아 속에서 생각할 때, 사상적으로 소중화의식이라고.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을 생각할 때의 키워드가 소중화의식. 그래서 石母田正선생님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중화의식을 미화할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국의식이라는 말. 이것은 80년대 이후 일본에서 보급된 말입니다. 제국 일본의, 영국사의 木畑洋一선생님이라는 사람, 그가 제국주의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각국, 국민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의식을 제국주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른바 소중화의식. 자국중심주의. 그래서 그것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써 취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그, 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石母씨, 木畑전씨도 일본의 뭐 솔직히 말해서 좌파이죠, 그렇기때문에 미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러한 문맥으로 말을 골라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 高橋公明씨. 저, 高橋公明씨의 조선대국관, 조선외교질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상적인 제국의식이라고. 그래서 서로가 제시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이 갖고 있던 가상적인 국제관계, 그들이 이상으로 구상하고 있던 국제관계란 이러한 것이었다. 조선왕조가 일찍이 이상으로 구상하고 있던 국제관계, 가상이니까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서로 제시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田代 : 잠깐 보충을 하면, 高橋公明씨에 대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가는, 그 위 사의, 연구사 중에서, 조선견사 붐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위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橋本 : 그래서 주신 어드바이스는 여기에 보충하는 것보다 별도의 논문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한 일은 일단 두고. 그렇습니다, 별도의 논문입니다. 여기에 포함시키면 몇 장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北島 : 근데 좀 보충해도 될까요.

吉田 : 그러면 짧게. 지금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문제에 관련해서 약간의 보충이 있습니다.

北島 : 저기, 그렇게 말하면 당황하니까, 잠깐만. 지금 소중화의식이라는 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江戶時代에 있어서도 日本型華夷意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이러한 한국에서도 쇄국이라는 것입니다. 북쪽의 북해도, 그리고 조선의 관계는 대마를 중개로 하고, 그리고 그것은 북쪽은 북해도로의, 그리고 대마를 중개로 한 조선, 그리고 島津를 중개로 한 류큐, 그리고 長崎와 네델란드의 관계. 그래서 다양한 형식으로 일본에 통신사가 오거나 류큐의 사절이 오거나, 그리고 네델란드인이 오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江戶막부가 세계의 중

심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것을 일본형 화이의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도 지배자들은 자국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쭉 있었다고. 이것은 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吉田 :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을 부탁합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로, 일단 논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北島 : 선생님도 의견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요.

吉田 : 아니아니,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못하니까요.

손승철 : 간단히 좀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橋本 선생이 쓰신 논문이 조선 사절은 접대를 중요시해서 무로마치 막부의 대조선관 내지, 조선사절관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가상의 대외관, 조선관이 증폭이 되어서 豊臣정권의 조선 침략으로 연결되어 갔다 라는 지적은 주목할 만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접대 방식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무로마치 막부 爲政者들의 잘못된 인식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相互認識, 또는 偏見이 역사적으로 兩國關係를 不幸하게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양국 국민이 얼마나 엄청난 상처를 받아야 했는가를 확실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읽다보면, 결론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 낼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假想의 朝貢 使節이라는 실재하지도 않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조선 사절을 정말로 조공 사절로 인식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의 조공 사절이라는 용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인식했던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에 대해서 좀더 비판적인 내용이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小中華 意識이라는 용어에 적합성의 문젠데. 橋本선생이 사용한 소중화 의식의 의미는 아까 설명한 설명에 의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로마치 시대에도 그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村井선생의 神國사상이라던지, 荒野선생의 일본형 화의의식이 있지만 무로마치 막부의 장군들이 과연 소중화 의식을 정말로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橋本 : 저, 만약에 가상적인 조공사절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까.

손승철 :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용어를 씀으로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니까...

吉田 : 저, 제가 일본측에서 하나만 보충하면, 橋本씨의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室町幕府는 현실의 국제관계와 가상의 국제관계의 격차에 항상 고민하고 있었다. 즉 자신들의 주관적인 문제와 객관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쓰고 계시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것 같은 걱정은, 일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문종 선생님, 부탁합니다.

한문종 : 앞서 선생님들께서 논문의 전체적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구체적인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입니다. 논문의 서문을 보면, 조선의 사절을 조선통신사, 일본통신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사절을 일본국왕사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본에서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사절을 조선 통신사, 일본 통신사로 쓴다면 파견 주체에 대한 행동이 오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 사용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용어입니다. 표 2쪽에 보면 投化倭人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간단하게, 또 역시 표를 보면, 李芸라고 하는 인명이 나오는데 일본의 약자로 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芸자는 한국에서는 운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六反田 : 그러니까 그, 「藝」자의 일본의 본래의 약자는 「芸」이라는 正字의 약자를 쓰고 있다.

한문종 : 특히 인명인 경우에는 원전에 나오는 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선의 일본사절에 대한 건데요. 조선의 사절이 장사를 목적으로 일본에 왔다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써 들고 있는 것이 사료 1과 2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료 1과 2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막부 장군이 너무 어려서 통치력 미약하고, 또 여러 大名들이 국역과 출전을 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의 사절의 입경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내기 위한 구실의 하나로 조선의 사절이 장사를 위해 내조하였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에서 일본에 사절을 파견할 때 각 사절마다, 사절들이 일본에서 행해야 할 사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節目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행 후에는 사행들이 일본에서 보고들은 사건을 기록한 문견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복명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들은 사건을 기록한다. 그 자료들에 의하면 조선왕조가 일본 막부 장군에게 보낸 사절 중에 장사를 목적으로 파견한 사절은 제가 보기에는 한 사절도 없었습니다. 만약 조선의 사절이 장사를 목적으로 일본에 왔다면 그들이 사고 팔 물건의 품목이나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지 있으면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田代 : 이것은 橋本씨는 이 설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吉田 : 그것은 일본의 구실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田代 : 그런 식으로 장사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기사가 있지만, 그러한 논문도 있지만, 橋本씨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한문종 : 저희에게 준 한국어 번역본에 의하면... 15페이지 첫 번째 줄 좀 봐 주세요.

橋本 : 한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니까 저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田代 : 아마 그, 번역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자는...

六反田 : 사료1, 사료2를 통독해 보면 伊川씨의 해석은 부자연스러운 억지해석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사 목적으로 왔다고 사절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억지해석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10페이지의, 그 아래쪽에, 한국어판에서는... 伊川씨가, 그, 伊川씨가 장사목적으로 왔다는 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橋本씨는 거기에 대해, 그것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아니, 「장사를 제일 목적으로 왔다고 상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이유는 없다는 표현입니다. 장사 목적

으로 상정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문종 : 일본어판 원고의 12페이지 아래에서 6행 째의 부분입니다만.

六反田 : 장사목적으로 상정해야 하는 이유는 없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吉田 : 장선생님, 부탁합니다.

장순순 : 네 발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쪽의 발표문 14쪽, 한국쪽의 12쪽을 보면, 발표자께서 1439년 통신사 고득종 일행이 ≪蔭凉軒日錄≫이라고 하는 문헌을 이용을 해서 통신사가 南面한 장군에 대해서 통신사가 삼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군의 南面은 조선 사절에 대해서 상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義敎는 그 欄中에 서있었는데, 통신사 고득종은 이러한 부적절한 의례에 대해서 말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일본에 대해서 조선이 하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써 해석을 하고, 나아가 중세 일본의 조선멸시관에 연결시켜서 논리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본다면 먼저 여기서 고득종이 굴욕적인 외교에 만족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측에 있어서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 ≪朝鮮王朝實錄≫이나 ≪海東諸國紀≫나 ≪經國大典≫과 같은 공공성이 짙은 자료들에 있어서 조선의 일본국왕사에 대한 외교의례를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몇 가지 예만...

吉田 : 저기, 잠깐 중간에서 죄송합니다. 오역이 있습니다. 저기 일본어에서, 일본어로 「甘んじていた」라고 있는 부분, 한국어에서는 「만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수하다.」...

손승철 : 감수한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거 아닌가요.

橋本 : 그것은 그렇습니다.

田代 : 거절하지 않는다.

장순순 : 그러면 다음으로 ≪朝鮮王朝實錄≫이나 ≪海東諸國紀≫와 같은 조선측의 사료들을 보면, 일본국왕사에 대한 조선측의 일본 접대를 보면 무로마치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은 삼포에서 일본국왕사를 접대할 때 宣慰使는 東壁을 했고, 일본국왕사는 西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통신사가 장군에게 하는 세 번의 절보다 한번 더 많은 네 번의 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조에서 행해지는 의례에서도 인사의 절의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조선측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 30년에 조정에서 동궁, 왕세자가 일본 국왕사를 어떻게 접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궁은 뜰위에 앉아 있고, 倭使로 하여금 서반 3품에 위치해서 뜰아래에서 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보면 정반대의 사례들이 조선측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발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발표자님의 논리 전개방식을 빌려 가지고 제가 제시한 사료를 통해서 조선정부가 일본국왕사를 가상 朝貢使節로 파악하고 아울러 조선 정부가 일본 멸시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橋本 : 그러면 우선 한선생님의 회답에서 남은 것이 있는데요, 그, 여기서는 조선통신사라든가 고려통신사라든가 일본통신사라고는 하지 않고, 조선국왕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좀 금후 의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문종 : 조선 국왕사의 범주에 서문에 보면 일본 통신사, 통신관, 회례사를 포함한다고 근데 거기다 일본 통신사를 써 놓으니까, 통신사, 통신관, 회례사라고 썼으면 별문제가 안되는데 일본 통신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일본 통신사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한 통신사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六反田 :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 한문종선생님이 문제로 하고 계시는 것은 그, 일본측 2페에지에서요, 서문 마지막 부분에서 저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선국왕사」란 「일본국통신사」 뿐만이 아니라 운운」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거, 일본국에 대한 일이, 그, 여기서는 그, 요컨대 일반적으로 조선통신사라고 하니까 일본국통신사라고 하면 그,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는 사절이라고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국」을 빼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橋本 : 죄송합니다. 이거, 실록의 기사대로 쓴 겁니다. 아니, 둘 다 맞기는 하는데요. 일본통신사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단순히 통신사라는 것도 있고, 그것은 그, 저는 빼도 되거든요. 이것은 그, 典據를 제시하면 된다는 말이죠.

吉田 : 그,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견되는 통신사에서 일본국왕사라는 표현이 ≪朝鮮王朝實錄≫에 나와 있습니다.

橋本 : 있습니다. 일본통신사도 있습니다,

吉田 : 그래서 그, 회답입니다. 한국측의 사료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한문종 : 그것은 얘기하면 안되죠. 사료대로 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한 사절,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절을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조선 통신사, 일본 통신사, 아 이거는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인가보다, 이것은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한 통신사인가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지요. 조선, 일본을 같이 앞에다 넣어놓으면...

吉田 : 그 점에 있어서는 논문을 쓸 때 전거를 제시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는 것으로 잘못한 부분이 없도록. 단 한문종 선생님이 귀중한 지적을 살려서 더 좋은 논문을 써 주십시오.

米谷 :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 사료용어의 괄호는 橋本씨가 새로 제창한 개념용어의 괄호와 같은 괄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橋本 : 그렇군요,

米谷均 : 두 번째 줄도, 그러니까 造語, 새로운 조어라고 할까, 조선국왕사와 조선측 사료에 있는 일본국통신사가 모두 같은 괄호이니까요.

橋本 : 네.

吉田 : 그러면 그 문제는 사무적인 것이니까, 저, 간결하게 부탁합니다.

橋本 : 그리고 이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저기, 실제 표기대로 하겠고, 이예도 고치겠습니다.

橋本 : 네, 그리고 永享11년의 高得宗의 인견기사, ≪蔭凉軒日錄≫인데요, 그게, 「甘んじてた」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구요, 오히려 싫어해서, 싫지만 받아들였다는 뉘앙스가 강하니까, 그것은 저는 그 뉘앙스를 강하게 하려고 썼는데요, 죄송하군요, 오해를 주게 된 거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海東諸國記≫에 나와 있는 그, 일본사절의 조선에서의 접대방법. 그래서 그러한 연구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中村선생님, 田中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의 접대의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았을 뿐인데요, 금후 그것을 비교해서 서로 비교하기 위한 재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금후 그러한 의미에서. 中村선생님, 田中健夫선생님, 이미 연구지만 일본측의 접대는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그래서 여기서...

田代 : 아니 그게 아니구요, 묻는 의미의, 저, 답변과 묻는 질문의 의미가 달라요. 어느 쪽이 위냐 아래냐 하는 것인데요.

橋本 : 아, 그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田代 :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녀(장순순)는 저, 조선이 위라고...

橋本 : 아니, 그것은 마지막에. 그 전에 그녀(장순순)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비슷하거나, 비슷하지 않거나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일본에서도, 중세 일본의 빙례라고 하는데요, 외교의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고대, 일본사에서 고대의 의례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세는 말할 필요 없고요. 중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연구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비교해 가면 좋다고 생각하구요, 부디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후에 있다고 생각되는 4拜하느냐 3拜하느냐 하는 배례 자세, 그것은 저, 그야말로 조선왕조가 가상적인 국제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라서, 저는 별로 그것을 부정하자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오히려 아까 北島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국, 뭐 현재의 나라와는 다릅니다만, 각 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제국의식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그것이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위냐 아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 없습니다.

손승철 : 정선생님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정리를 해서...

정구복 :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머리말과 여러 곳에서 영접체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이것은 법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절차나 영접 관행이라고 표현해야 옳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영토 안에 들어온 외국 사신을 설명한 대로 해적이 돈을 받고 운송해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영접체제라고 표현해도 좋을까, 또한 이런 외교적 절차의 관행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자의 설명대로라고 하면 옛날부터 일본이 조선을 쳐서 정복, 지배해 왔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橋本 선생이 가상의 조공 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전설적인, 神功皇后의 조선 정벌이라든지 그 이전의 삼한에서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 이러한 근거 없는 사실을 의미한 듯한데,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지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며, 역사논문에서 가상이라는 말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역사가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논문은 논문 제목과 결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橋本 : 그게, 저, 실체와 사실의 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려고 한 사실은 그러한 옛날의 전설이 당시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국제관계를, 저, 실제적인 국제관계는 그, 뭐 본문의 앞의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3장에서.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런 것이니까요, 言說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정구복 : 글쎄, 그렇다면 談論이라고 하는 것을 왜 假想이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말입니다. 일본에서의 조선 멸시관에 대한 무로마치 정권의 역사 인식이던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야지, 그런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상이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습니까. 담론은 담론으로 전해왔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吉田 : 아니, 이거 좀 확인해야 되는 일인데요, 언설은 푸코가 말한 언설이죠. 그렇지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橋本 : 포스트 모더니즘...

吉田 : 프랑스의 철학자인 푸코입니다. 의미를 붙인 겁니다.

조광 : 저의 대답에 대해서 일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외교사는 일국사여야 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橋本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의 문제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광 : 그러나 이것은 문제 설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외교는 양국관계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설정되어야 하고 一國史 입장에서 서술한 外交史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두 번째, 동아시아 각국의 외교간의 구체적 사례 연구가 축적되어야지 동아시아 시각이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이 작업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적 시각 내지 담론은 반드시 이런 견해만을 지칭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일본을 섬나라로 규정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서 무로마치 막부가 자신을 천하·중화라고 생각했다면 무로마치 막부의 생각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구에서 동아시아 담론적 방법이 의식이 된다면 이러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세 번째, 小中華 意識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중화 의식이라는 용어를 당대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연구자의 해석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본형 화의의식이나 소중화 의식이 역사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재고할 점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외에 더 많은 문제를 나누고 싶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吉田 : 저, 전부 정리해서 橋本선생님, 오늘 발표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뭔가 마지막에 한마디 있습니까.

橋本 : 저, 저도 室町幕府가 소중화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결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면에서 받아들여서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학회라고 할까, 연구사의 각 나라의 과거, 일본사의 흐름의 배경은 다릅니다만, 최종적인 목표는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吉田 : 네, 감사합니다. 저, 이미 시간도 초과하였습니다. 오후의 발표, 橋本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橋本씨, 감사합니다(끝).